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20. 11

제 출 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보고서를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연구수행기관 : metaa (주)메타기획컨설팅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목 차

1. 과업 개요 6

2. 주요 이슈 10

3. 기본방향 및 전략 60

4. 공간검토 및 구상방안 78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01

과업 개요

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
2. 과업 추진 관점 |
3. 과업 수행 프로세스 |

과업의 목적 및 범위

장애예술 전문 창작공간의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창작공간 재구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장애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전문 창작공간으로서의 운영 방향성 제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 조성 방향 도출
-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시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 확장, 베리어프리 등 요구사항의 효과적인 반영을 위하여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을 동반한 체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 마련

–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국내 최초/유일의 장애예술인 전용 시각예술 레지던시로서, 장애예술가 발굴 및 인큐베이팅을 통한 장애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1년 서울시 동남권 개발사업에 따른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으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따라 현재 장애예술인 레지던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장애예술인 전용 시각예술 레지던시로서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전 장르를 아우르는 장애예술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이 요구되며,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의 다양성 실현 및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공간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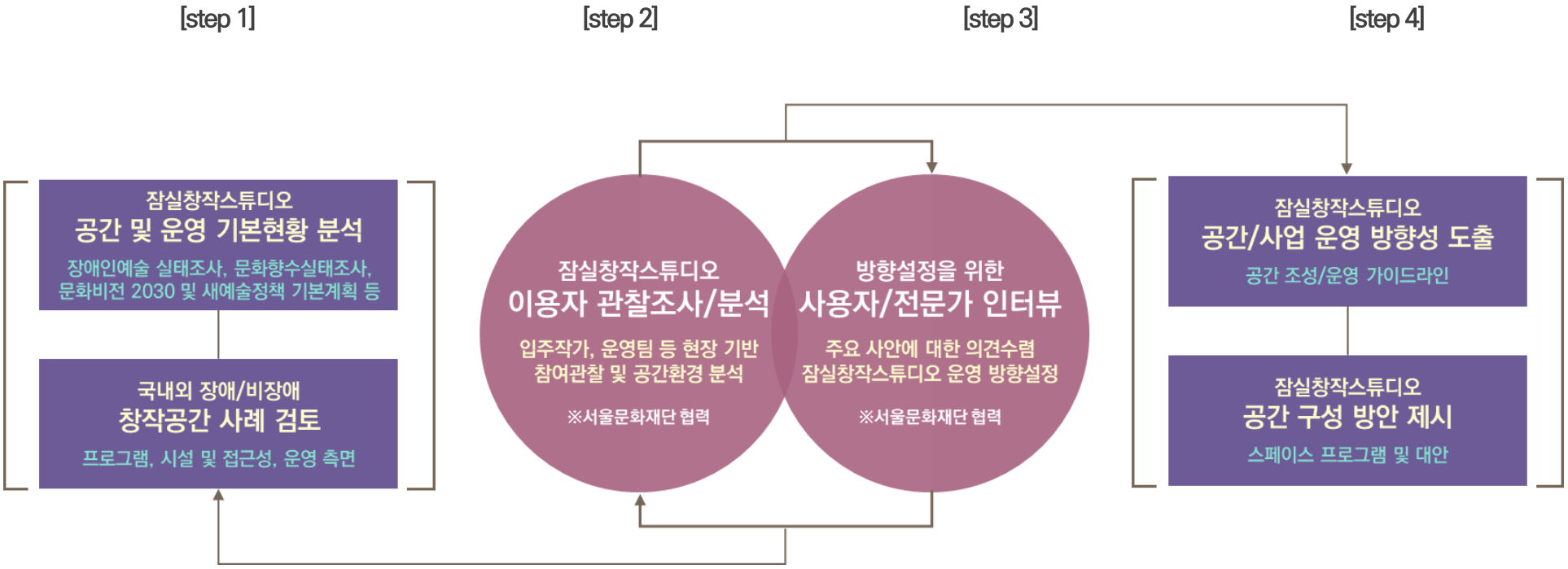
▪ 과업의 내용적 범위

- 이용자 관찰조사 및 공간환경 현장 분석
- 주제별 의견 수렴 및 통합분석
- 공간 및 사업 운영방향 설정
-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 재구성(안) 도출

▪ 과업 기간

- 2020.8.20 ~ 11.19

과업 수행 프로세스



-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 및 운영 기본현황 분석
- 국내외 장애/비장애 창작공간 사례 검토

- 잠실창작스튜디오 이용자 관찰조사
  : 입주작가 운영팀 등 현장 기반 참여관찰 및 공간환경 분석
- 사용자/전문가 인터뷰
  :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방향, 필요 공간 요소,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 및 사업 운영 방향성 도출
  : 공간 조성/운영 가이드라인
-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구성 방안
  : 공간 구성 방향 및 원칙, 스페이스 프로그램 제시 등

과업 추진 관점

장애예술 창작공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최고 수준의 접근성 뿐 아니라
확장된 문화예술 활동과 기능을 포용하는 다양성, 장소적 특성과 공간변화 연동 등의 관점 견지

1 [잠실창작스튜디오 X **정체성**]
"장애예술 창작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넘어 확고한 정체성 확립"

2 [잠실창작스튜디오 X **접근성**]
"공간/프로그램/심리적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접근성 구현"

3 [잠실창작스튜디오 X **다양성**]
"보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과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기반 마련"

4 [잠실창작스튜디오 X **장소성**]
"잠실운동장의 장소적 특성,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의 변화와 연동"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02

잠실창작스튜디오를 들여다보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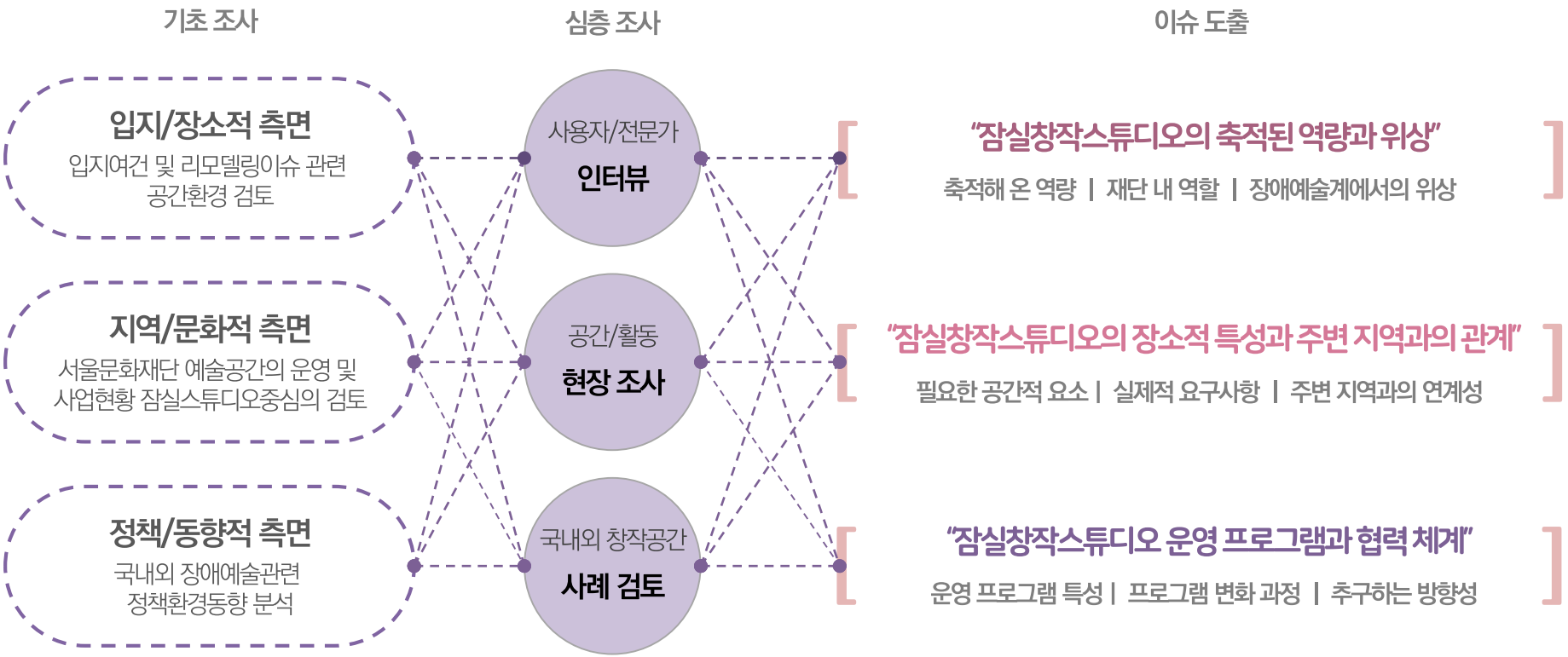
주요 이슈

1. 축적된 역량과 위상 |
2. 장소적 특성과 공간구성의 특별함 |
3. 운영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성 |

이슈 도출을 위한 과정 개요

현장조사와 입주작가 인터뷰, 전문가 그룹 논의, 국내외 동향과 공간 운영 사례 등을 통해 잠실창작스튜디오를 다각도로 해석하기 위한 이슈를 도출함

▪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한 과정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심층 인터뷰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를 비롯하여 장애예술창작공간 관련 전문가, 창작스튜디오 참여자, 협업 예술가/기획자를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함

▪ 공간 현장조사 및 인터뷰 진행 프로세스

9월16일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5인 작업실 방문 및 개별인터뷰
잠실창작스튜디오 현장조사

9월25일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1인 작업실 방문 및 개별인터뷰
창작공간 매니저 인터뷰 및 현장조사

10월16,17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같이있는가치'
포럼 및 전시 프로그램 현장조사

10월26일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
그룹인터뷰1차 : 장애예술확장/연계 분야
OOO 예술 평론가, OOO선사랑드로잉회장,
OOO 금천입주작가, OOO 핸드스피크 연출가, OOO
다단조 기획자, OOO 다단조 기획자

10월28일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
그룹인터뷰2차 : 공간/프로그램
OOO 큐레이터, OOO 홍댄스컴퍼니 대표,
OOO 축제행성 대표, OOO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매니저,
OOO 입주작가, OOO 서울시 발달장애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 한양대 전임연구원

▪ 주요 논의 이슈

역할과 위상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기대 역할	• 목적/단계별 창작공간이 집중할 역할에 대한 의견 청취 •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중 잠실창작스튜디오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인식 • 장애예술작가의 활동기반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의 범위
	장애예술 창작자 지원 방안	•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 목적의 프로젝트 및 사업 현황 • 프로그램 참여 작가들의 실제적인 의견 • 국내 예술가 창작지원사업과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특정 지원 요구지점
장소적 특성과 공간 구성	접근성의 확보 범위와 최적화 지점	• 장애인 활동기반으로서 확보 가능성 진단과 방안 • 창작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접근성 제공 수준의 설정 • 협업 및 연계 작품활동 매니지먼트 등 분야별 전문 매개자 필요성
	이용자/예술장르에 따른 공간 구상	• 현재 잠실 창작스튜디오의 레지던시 기능 공간적 적합성 • 장애예술 창작의 중심적 장소성 획득 여부 및 가능성 • 장애유형별 특징에 따른 공간 특성화 제공의 필요성과 가능성
운영 프로그램 확장 범위	활동기반으로서 장애예술술공간	• 국내 장애예술작가 육성 시스템 활성화 정도 •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비중. 장르 다변화 및 협업 활성화 방안 • 장애유형별 특징에 따른 작가 맞춤형 사업 필요성
	확장성을 고려한 운영 방향 등	• 지역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시민예술향유 등 기대할 수 있는 확장적 역할 • 장애예술 창작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중심축이 되는 운영체와 사업 제언 • 재단 창작스튜디오 및 장애예술 관련 민간 기업 등 연계 범위/필요성

주요 이슈 종합

1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축적된 역량과 위상"

[이슈 1-1]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축적해 온 역량은 무엇인가?
[이슈 1-2] 서울문화재단 내에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슈 1-3] 장애예술계에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위상은 어떠한가?

2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장소적 특성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이슈 2-1] 장애예술 창작공간에 필요한 공간적 요소, 실제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이슈 2-2]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3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프로그램과 협력 체계"

[이슈 3-1]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슈 3-2]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슈 1]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축적된 역량과 위상"

[이슈 1-1]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축적해 온 역량은 무엇인가?
[이슈 1-2] 서울문화재단 내에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슈 1-3] 장애예술계에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위상은 어떠한가?

1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축적된 역량과 위상"]

[이슈 1-1]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축적해 온 역량은 무엇인가?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 창작공간이라는 상징성과 축적된 운영 경험
장애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작가 시스템 운영의 지속성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및 공간운영 노하우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 창작공간이라는 상징성과 13년간 축적된 공간 운영의 경험

2013년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장애예술 창작공간으로 운영 지속

■ **연혁 및 주요 활동**

[연혁과 변곡점]

2007 — 10월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로 개관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위탁운영

2011 — 1월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로 서울문화재단 운영 위탁

2012 —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명칭 변경

2013 — 3월/9월 내부시설 개선 리모델링 공사/재개관

1월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고유사업화

2017 — 7월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19 —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프로젝트 〈같이 있는 가치〉

[주요 사업]

2013 — 장애아동 창작지원사업 〈프로젝트A〉 신설

2014 — 문화예술 교육강좌 〈굿모닝스튜디오〉 신설

2017 — 지역매칭펀드 지원사업 신설

2018 — 외부연계 다각화 및 외부재원 유치 확대

LG U+ 5G 갤러리 전시

조형아트서울 전시

장애예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작가 공모/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

200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11기 운영(매회 약 12명 내외 선정)

■ 입주작가 누적 현황

- 2007년 이후, 회당 12~14명(2013년 7기 이후 12명 유지)의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2020년 현재 11기 입주작가가 활동 중임
- 11기까지 총 참여 작가수는 142명이며, 재입주로 인한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총 70명의 작가들이 잠실창작스튜디오를 거쳐간 것으로 확인됨
- 평균적으로 약 1회 재입주한 셈이며, 최다 입주한 횟수는 5회(4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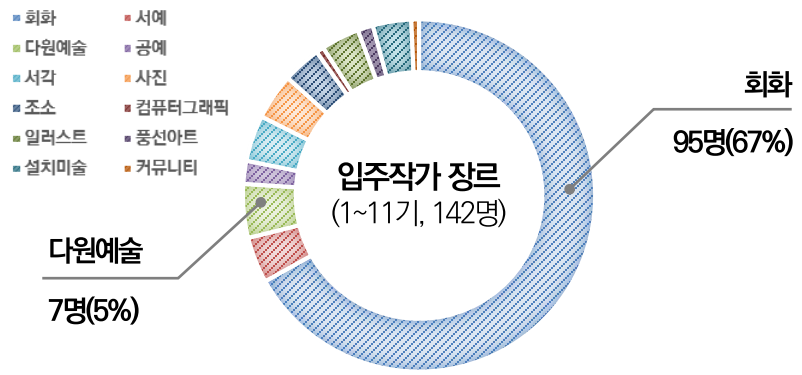
〈잠실창작스튜디오 역대 입주작가 명단(1~11기)〉

곽현진	임기옥	문승현	김경아	김명아	김현우	서은정
김병일	조혜영	신현임	김용	김병주	박은영	정은혜
김보나	한정섭	엄덕용	김현정	이영익	박주영	홍세진
김영수	금무웅	임성근	어윤진	조민서	신동민	김기정
김재호	김동섭	박관우	이민희	최종선	임병한	박찬별
김지환	김종순	박경묵	이우주	허 욱	한승민	서은정
김충현	이수욱	박혜경	이윤정	김은설	김경선	이민희
문은주	임현주	봉영선	최창국	이동엽	김태훈	이선근
유제흥	한형학	신재환	홍석민	이진솔	김현하	이우주
이현주	강인규	이용일	고홍석	정도윤	김환	전동민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공모 프로그램(2007~현재)

-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입주작가 공모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운영하면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터로서의 역할을 해옴
- 입주예술가들은 평균적으로 스튜디오를 주 4회 가량 이용(2019년 입주예술인 기준)하는 등 각자의 삶과 예술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 1~11기 전체 입주작가 중 장르별로는 회화가 95명(67%)으로 가장 높으며, 다원예술, 사진 등이 매회 1~2명 정도 포함되고 있음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장르(1~1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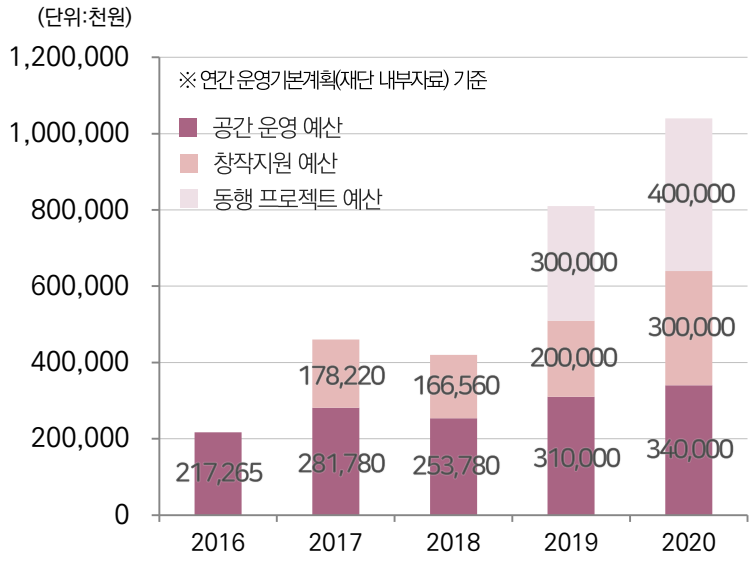
장애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네트워크 확장

입주작가 인큐베이팅 등 차별화된 장애예술 창작 지원과 협업/참여 프로그램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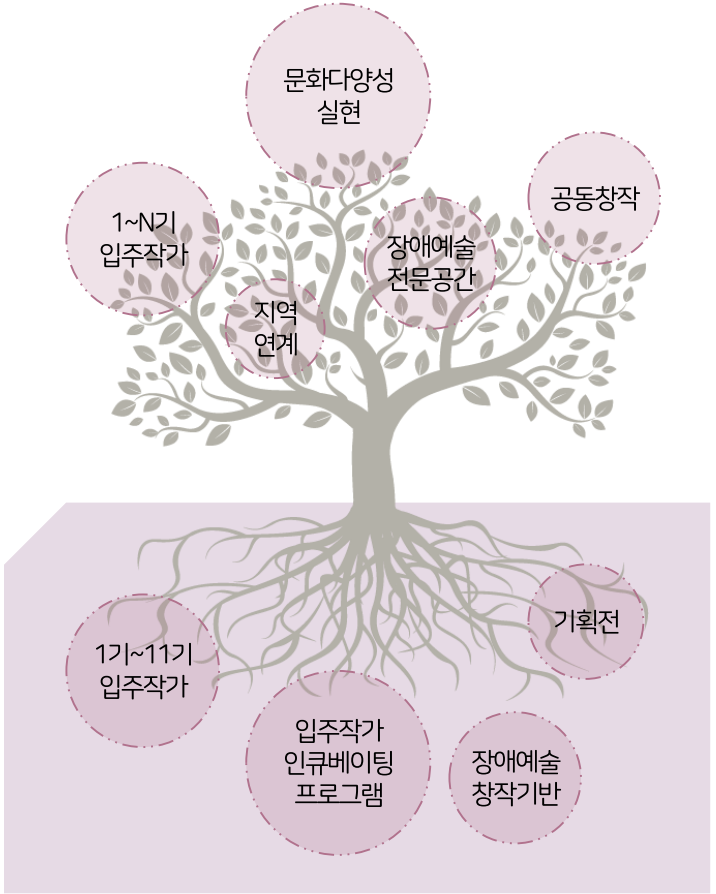
■ 예산 및 참여자 수 추이

-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예산은 2017년부터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2019부터는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 예산이 책정된 바 있으며, 2020년도 총 사업예산은 약 10억 원 규모에 이름(기업 후원 1.4억 원 별도)
- 2017년 이후, 참여자(프로그램 이용자) 수 또한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잠실창작스튜디오 예산 변동 추이(2016~2020)〉



〈잠실창작스튜디오 참여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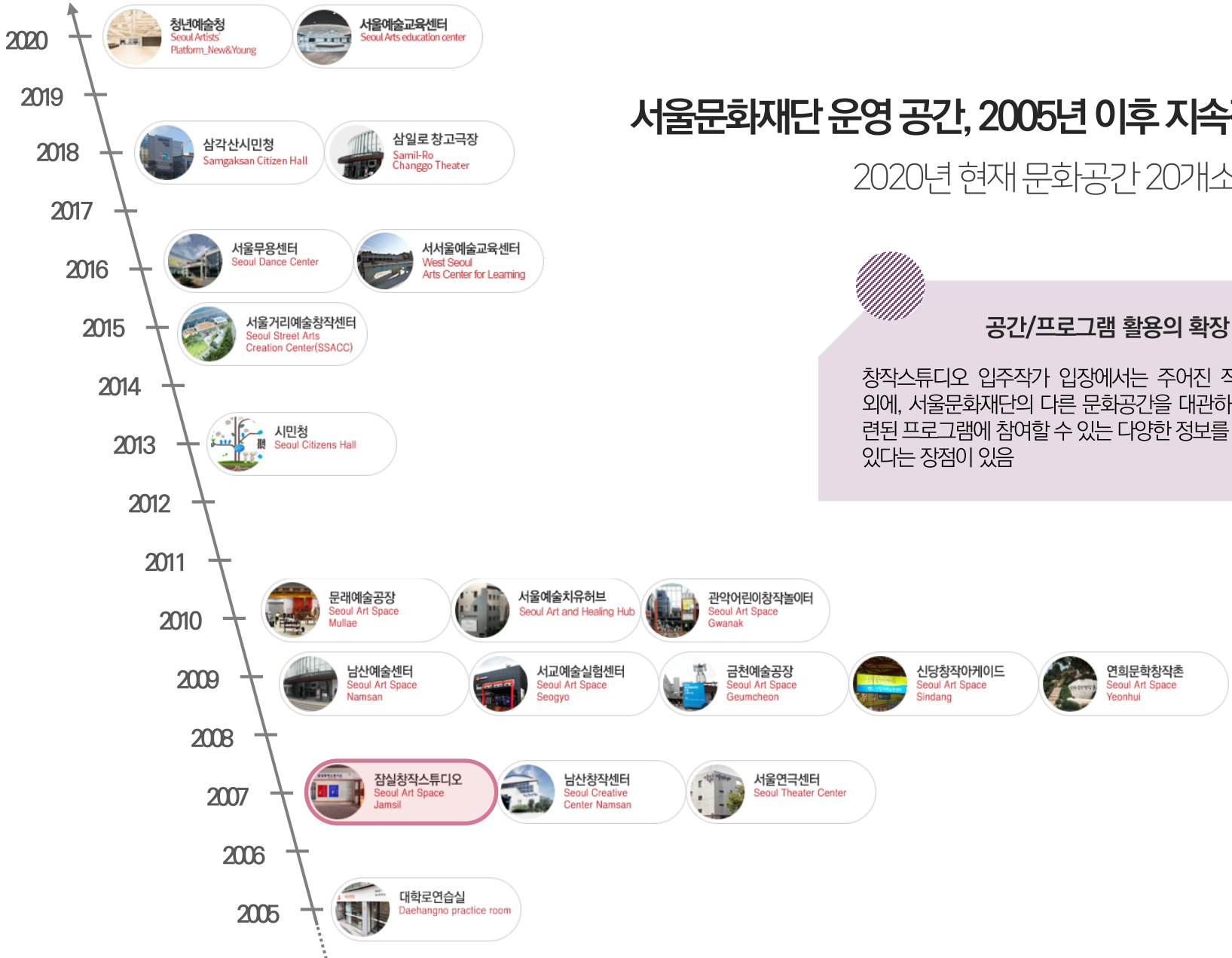


1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축적된 역량과 위상"]

[이슈 1-2]

서울문화재단 내에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문화재단 내 20개 문화공간 중에서도 독보적인 캐릭터
서울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 전역 및 전국적인 영향력
장애예술 특성에 최적화된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체계의 롤 모델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 2005년 이후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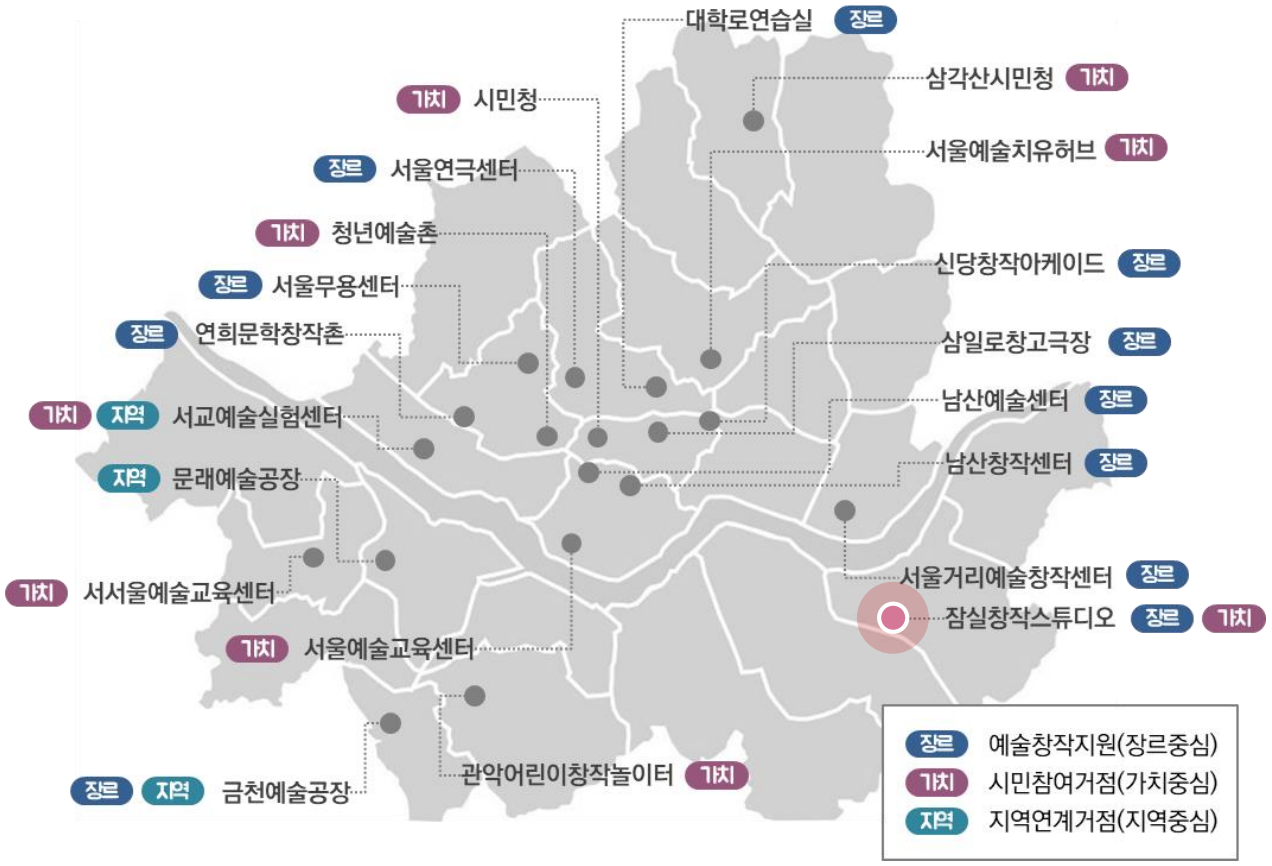
2020년 현재 문화공간 20개소 운영중

공간/프로그램 활용의 확장 가능성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입장에서는 주어진 작업공간 외에, 서울문화재단의 다른 문화공간을 대관하거나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장애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이자 장애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의 거점

예술창작지원의 역할을 넘어, 가치 확산을 통한 시민참여 역할까지 담당



- 서울문화재단 20개 예술공간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2010년 이전까지는 주로 장르 중심의 공간들을 조성하였고, 그 이후 시민과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가치와 지역 중심의 공간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초기에 조성된 창작공간으로 장르 중심의 성격을 넘어 장애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문화공간임

[장르 중심]
주로 각 예술장르에 따른 창작지원을 목적으로 활동 지원과 작업공간 제공 등의 프로그램 운영

[가치 중심]
시민 문화참여와 소통, 예술 창작/참여 기회 증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지역 중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 생태계 조성 및 지역재생과 연관된 사업 및 공간 운영

[참고 자료] 서울문화재단 문화공간 개요 및 공간 구성 현황

공간명	역할	개관일	지역	연면적	키워드	공간성격
대학로연습실	장르	2005.01.05	종로구	-	공연예술/연극	대학로 중심에 위치한 공연예술/연극 중심 창작연습공간
잠실창작스튜디오	장르,가치	2007.10.05	송파구	567	소수자	국내 최초의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남산창작센터	장르	2007.10.10	중구	1,966	공연예술	중, 대형 공연을 준비하는 전문 무대 예술인의 창작 연습 공간
서울연극센터	장르	2007.11.10	종로구	-	공연예술	서울형 연극 창작 생태계의 허브
남산예술센터	장르	2009.06.08	중구	1,531	공연예술	창작 초연 중심 제작극장
서교예술실험센터	가치,지역	2009.06.19	마포구	552	거버넌스	홍대 앞 예술생태계를 연결하는 예술 플랫폼
금천예술공장	장르,지역	2009.10.07	금천구	3,070	시각예술	시각예술분야 전문 레지던시
신당창작아케이드	장르	2009.10.16	중구	1,389	공예디자인	서울시 대표 공예·디자인 레지던시
연희문학창작촌	장르	2009.11.05	서대문구	1,480	문학예술	아시아 문학중심을 꿈꾸는 서울 속 문학둥지
문래예술공장	지역	2010.01.28	영등포구	2,820	실험.다원예술	문래창작촌 지역과 실험적 예술을 아우르는 복합창작지원 허브
서울예술치유허브	가치	2010.07.28	성북구	1,997	예술치유	시민의 삶과 사회 치유를 위한 예술치유 플랫폼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가치	2010.12.17	관악구	403	어린이	어린이의 상상력을 키우는 예술체험 놀이터
시민청	가치	2013.01.12	중구	8,179	시민소통 시민참여	시민참여와 소통의 공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장르	2015.04.24	광진구	-	거리예술,서커스	제작, 연습, 교육, 배급 및 교류 등 거리예술과 서커스의 베이스캠프
서울무용센터	장르	2016.04.08	서대문구	2,044	공연예술.무용	무용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무용예술 창작공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가치	2016.10.08	양천구	1,190	어린이.청소년	어린이·청소년 예술놀이 콘텐츠를 개발·확산하는 문화플랫폼
삼각산시민청	가치	2018.04.28	도봉구	540	시민소통공간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동북권 대표 시민소통공간
삼일로창고극장	장르	2018.06.22	중구	-	공연예술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가능한 소극장
청년예술청	가치	2020.08.21	서대문구	1,500	청년	새로운 예술적 실천과 실험이 생산되는 안전한 플랫폼
서울예술교육센터	가치	개관준비중	용산구	2,949	청소년	청소년들을 위한 쓸모 있는 경험을 모색하는 예술교육 공간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개관일 순 정리

서울 동남권(잠실)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 포함 전국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공간이지만, 영향력으로는 전국적인 롤 모델

■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영향력

- 서울문화재단의 문화공간들이 대부분 서울 도심부(강북 지역)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남권에 위치한 재단의 문화공간은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유일함
-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잠실운동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 시설이나 잠실/송파구 등 인근 지역과의 연관성을 크지 않은 상황임. 오히려 아직 전국적으로 지역 기반의 장애예술 창작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전국적인 롤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 내 타 장르 창작공간들이 어느 정도 지역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임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사업들이 민간의 장애예술 관련 단체들의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고,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정체성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장애예술 담론 형성을 이끄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 분명한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내용 발췌]

〈서울문화재단 내 타 창작공간 현황〉

공간	전략목표	장르	공간 현황
금천 예술공장	시각예술분야 전문 레지던시	시각 예술	스튜디오 19실, 호스텔 5실, 대형 전시장, 미디어랩, 워크숍룸, 창고동, 남녀샤워장, 세탁실 등
신당 창작아케이드	서울시 대표 공예·디자인 레지던시	공예 디자인	공방 35개, 공동작업장, 커뮤니티룸, 사진실, 입주작가 활동공간
문래 예술공장	문래창작촌 지역과 실험적 예술을 아우르는 복합창작지원 허브	실험 다원예술	갤러리M30, 박스씨어터, 포켓갤러리, 녹음실, 영상편집실, 세미나실, 회의실, 운영사무실
연희 문학창작촌	아시아 문학중심을 꿈꾸는 서울 속 문학둥지	문학	집필실(19개), 야외무대, 문학미디어랩 등 커뮤니티 공간
서울 무용센터	무용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무용예술 창작공간	무용	스튜디오 2실, 연습실 4실, 호스텔 6실과 커뮤니티룸 등
서울 예술치유허브	시민의 삶과 사회 치유를 위한 예술치유 플랫폼	치유 예술	코워킹 스튜디오, 프로그램실, 갤러리, 주민창작실, 밴드실 등 (총 17개의 예술치유 활동 공간)
서울 거리예술 창작센터	거리예술과 서커스의 베이스캠프	거리예술 서커스	메인홀, 연습실 및 영상제작실, 야외마당, 목공/철공제작 아뜰리에, 예술가 레지던시

[이슈 1-3]

장애예술계에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위상은 어떠한가?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 기본적인 공간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상황
잠실창작스튜디오와 이음센터, 지역 기반의 장애예술 활동공간들
장애예술계와의 접점이자 새로운 문화생태계로서의 가능성

장애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 인프라 조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상징적 의미의 창작공간 확장 기반 조성

■ 장애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

- 2018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창작 및 발표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 요소는 대부분 공간 및 시설의 부족 관련한 내용임
- 장애예술 발표나 전시, 공연 시설 부족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연습/창작공간에 대한 부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
- 예술활동 관련 작업공간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활동 작업 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절반 이상(65.4%)으로 집계되었음. 장애 유형에 따라 지체장애 예술인은 자택 내 작업공간을 보유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각장애 예술인은 자택 외 작업공간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의 확보는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장애예술의 저변 확대 등 영향을 고려할 때, 상징적인 측면이 있음

〈창작 및 발표 활동에서 어려운 점〉

* 출처: 2018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술활동 관련 작업 공간 보유 여부〉

* 출처: 2018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내 대표적인 장애예술 창작/지원 공간 : 잠실창작스튜디오와 이음센터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에 비해 지역 기반의 활동공간 여건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

■ 국내 대표적인 장애예술 창작공간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 국내 장애예술 창작/지원 공간은 잠실창작스튜디오와 이음센터(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가 대표적임. 두 곳 모두 전반적인 장애예술 창작/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간을 기반으로 한 기획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굳이 특성을 비교하자면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시각 예술, 이음센터는 공연 예술에 보다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가칭)장애예술공연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문화재단에서도 장애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창작공간 조성 등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부산문화재단이 장애예술 창작공간 '온그루'를 개관(2020. 11.)하여, 입주작가 공간, 전시실 등의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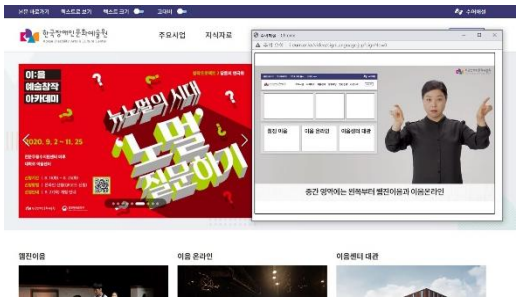
"장애예술가들이 예술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해 꼭 거치고 싶은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술교육과정의 학생들이 '잠실'을 찾는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작가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활동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과 입주작가에 최적화된 전문 창작공간이 꼭 대척점에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인터뷰 내용 발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

- 2015년 3월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같은 해 11월에 공식 개관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이음아트홀(172㎡), 이음갤러리(165㎡), 연습실(95㎡), 커뮤니티룸1/2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예술 역량강화,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인력양성, 장애인 문화예술진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019년 기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규모 약 45억 원)
- 최근에는 장애 예술인/기획자 역량강화 워크숍(Sync), 해외공연 쇼케이스, 포용적 에술 워크숍 및 강연 등 보다 폭넓은 형태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장애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오히려 실험적 작업이 가능한 실제적 공간

장애예술계와의 접점이자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로서의 가능성

■ 보다 실험적인 작업이 가능한 창작공간으로서의 정체성

- 장애예술가들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장벽들'을 최대한 낮추거나 제거한 공간과 시설, 운영/서비스 체계 등을 갖추는 것이 장애예술 창작공간 구성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부분임
-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운영 노하우,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잠실창작스튜디오' 자체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창작공간으로서 (입지적인) 접근성은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비장애 작가를 입주시켜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부차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창작자로서 실험적인 작업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확실한 장소(시설) 기반을 갖춘다면 다양한 예술인이 먼저 찾게 되지 않을까요."

"잠실창작스튜디오 비유하자면 입지상 조경수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입지 장소성을 반영한다면, 타자를 마주하고 대화하는 실제적 공간으로서 지향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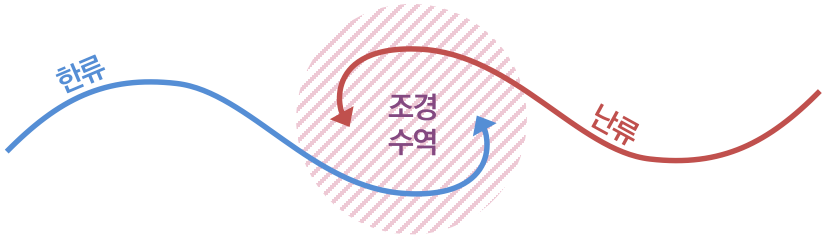
[인터뷰 내용 발췌]

조경수역

한류(寒流)와 난류(暖流)처럼 서로 다른 성질의 두 해류가 만나는 경계가 되는 수역

- 조경(潮境, boundary of water mass)이란 바닷물 흐름(해류)의 경계부라는 의미로, 서로 다른 두 해류가 만나는 곳을 가리킨다. 조경수역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두 해류가 만나는 수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 한류와 난류가 만나게 되면, 한류의 밀도가 더 높아 무거우므로 난류의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두 해류의 성질 차로 인해 경계부에서는 해류의 수직 순환 등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바닷속 깊은 곳의 영양염류가 상승하고 산소와 플랑크톤의 수직적 순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물고기들의 먹이가 풍부해져 어족이 풍부한 어장(漁場)이 형성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장들은 대규모의 조경수역에 형성된 경우가 많다.

[두산백과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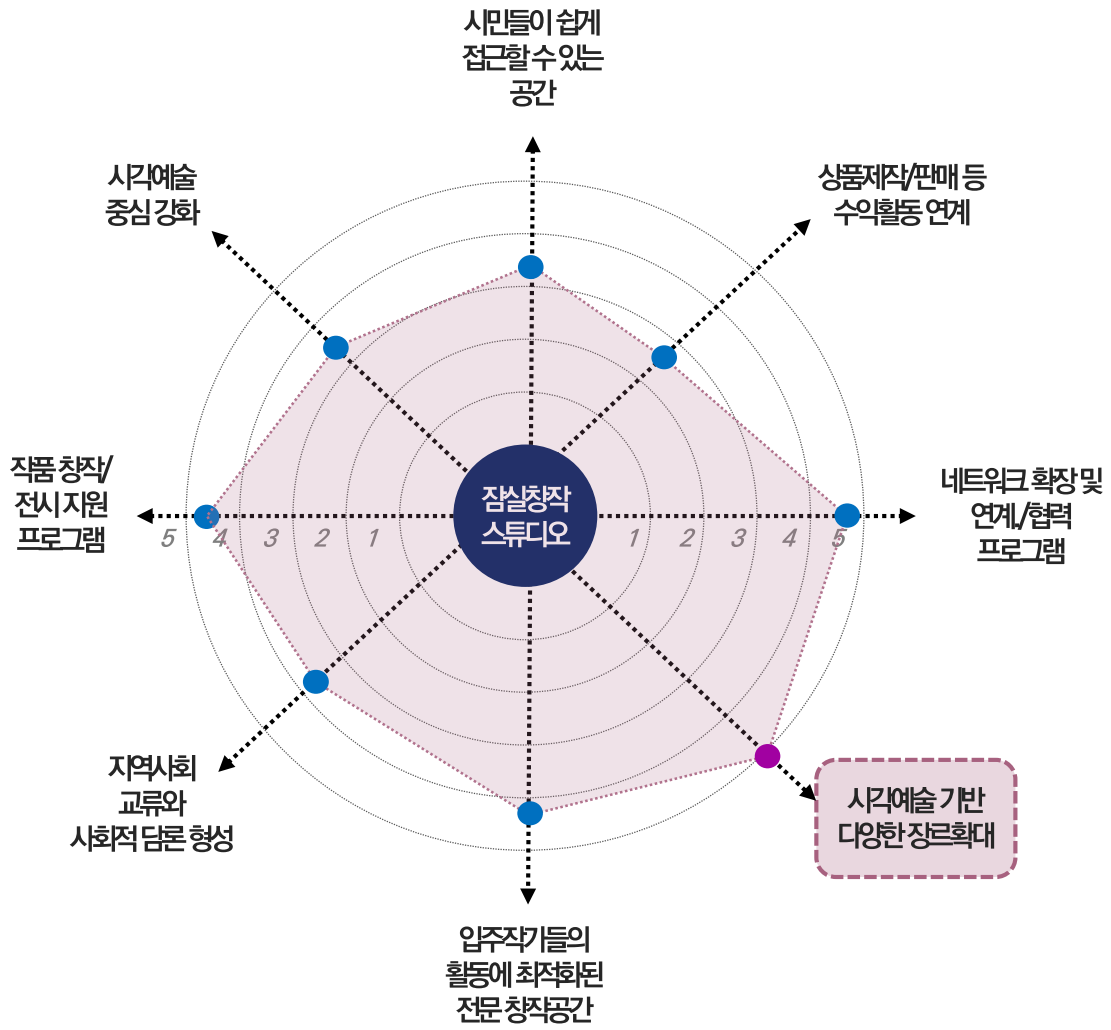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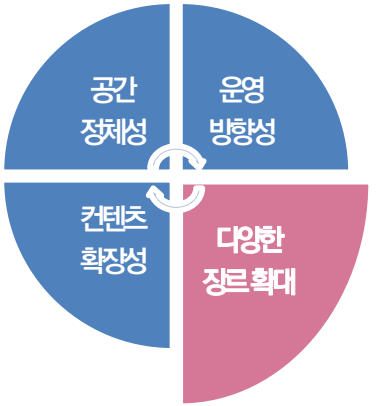
1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축적된 역량과 위상"]

- 국내 최초의 장애인 예술전문창작공간 13년의 운영 동안, 장애인 예술가의 역량강화와 장애-비장애 동행 프로젝트 등 차별화된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등 상징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20개 예술공간 중에서도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창작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의 독특함으로 인해 이음센터(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와 더불어 장애예술 관련된 담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음
- 특히 시각예술 분야의 장애예술가들에게는 경험해 보고 싶은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어, 연간 인원수가 제한된 입주 작가들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창작 활동의 장르간 협업이 확대되면서 시각예술에 중점을 둔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참고자료]

[그룹인터뷰/설문 1] 잠실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공간 운영 방향성 관련 중요도





- 4개 기준(8개 항목)으로 공간의 프로그램 및 운영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응답자 100%가 시각 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어 [창작/전시 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확장 및 연계,협력 프로그램]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평균 4.6~4.7 (5점 만점)으로 확인됨

"시각예술은 특히 현대미술에서 넓은 포용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든 회화든 영역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보는데 장애예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간구조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내용 발췌]

[이슈 2]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공간적 특성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이슈 2-1] 장애예술 창작공간에 필요한 공간적 요소, 실제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이슈 2-2]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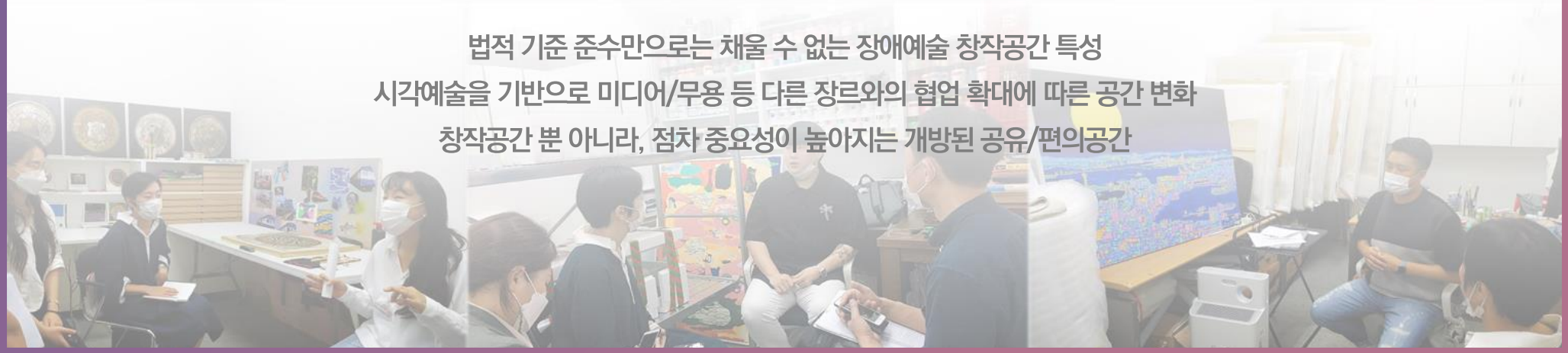
[이슈 2-1]

장애예술 창작공간에 필요한 공간적 요소, 실제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법적 기준 준수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장애예술 창작공간 특성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미디어/무용 등 다른 장르와의 협업 확대에 따른 공간 변화

창작공간 뿐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는 개방된 공유/편의공간



기능에 따라 창작공간, 전시/교류공간, 공유/편의공간, 사무/지원공간으로 구분

잠실종합운동장 데크 하부 공간을 리모델링(2013년)하여 공간 활용

잠실창작스튜디오 영역별 구분

- 연면적 567㎡(외부 공용작업장 포함), 화장실은 외부공간으로 면적 포함 제외
  - [꿈채운] 개인작업실: 183.5㎡ / 12실
  - [하늘연] 다목적 공간: 105.9㎡ (천정고 3.6m)
  - [미소뜬] 공용 카페테리아: 58.9㎡
  - [니은갤러리/콩갤러리] 전시공간
  - 사무공간, 외부 공용작업장 등

- 현재 잠실 창작공간의 현황과 프로그램 활동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공간 구성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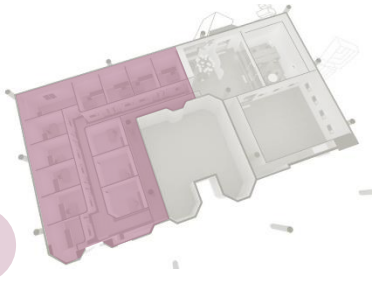
1. 창작공간 :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
– 개별 창작 공간 및 공용창고, 야외 작업장 등으로 구성

2. 전시/교류 공간 : 프리젠팅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
– 전시,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 영역

3. 공유/편의 공간 : 공용, 편의 영역
– 로비 및 커뮤니티홀, 예술가 및 직원을 위한 편의 공간 영역

4. 사무/지원 공간
– 사무실 및 준비실, 각종 창고 및 시설관리 관련 시설

이슈 2-1



창작 공간

장애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여유있는 공간 규모와 안전한 작업 환경의 조성

- 창작에서 여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 곳에서 생활할 작가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공간구조, 인테리어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개인실의 크기에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함. 개별적 필요를 전부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틀을 갖춘 상태에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금천예술공장의 경우]
설치미술 등 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임. 그에 따라 기존 작은 작업공간 두 개를 터서 큰 공간 하나로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 작업 중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매번 (외부)화장실에 이동하는 것이 번거로움. 방마다 싱크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스튜디오 가운데 내부에만 있어도 불편이 덜 할 것 같음. 대부분의 재료가 독해서 작업공간의 환기 설비가 잘 갖추어져야 함
- 바깥으로 난 창문은 작업 여건 뿐만 아니라,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함. 소리 정보 뿐만 아니라 농인을 위한 시각 정보를 통한 알람 시스템을 통해 안전문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농인끼리 있을 때 오히려 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청인들의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인들의 작업공간에 방음시설이 잘 갖춰질 필요가 있음. 막힌 벽 보다는 넓은 유리창이 농인들의 의사소통에 더 유리한 점 등 농인과 청인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음
- 지체장애인의 경우, 작업을 위해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바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음. 지체장애인의 작업 공간에 대한 바닥 조성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입주작가 인터뷰 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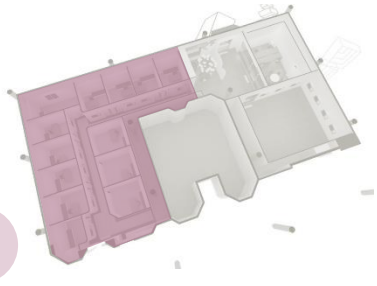
"초기 입주작가를 14명에서 12명으로 줄이게 된 것은 최소한 작업실에 할애할 면적이 4평은 되어야 했는데,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공간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를 위한 동반인까지 항상 2~3명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별 작업실 면적이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2013년 리모델링 이후 스튜디오에 입주하는 작가들의 폭이 넓어졌던 것처럼, 면적만 어느 정도 확보되어도 공간제약 때문에 입주할 수 없었던 작가들까지 더 다양한 예술인들이 잠실스튜디오를 작업 공간으로 고려해보고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인터뷰 내용 발췌]

이슈 2-1



창작 공간

장애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여유있는 공간 규모와 안전한 작업 환경의 조성

- 공간이 갖는 분위기는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기운일 수도, 공간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음. 창작, 표현, 교류의 프로세스가 공간적으로도 드러날 필요도 있을 것임. 장시간 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입주작가들이 공간에 친근감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장애예술'이라는 명칭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 장애예술작가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밤샘 작업 허용 등 운영의 문제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이후 이용자들과의 사용 방식에 따라 결정해 나갈 사항임
- 가마, 3D프린터 등 공용시설이 있지만 공간도 부족하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함. 작품/프로필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의실에서 촬영을 하기도 함. 창작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조력자와 전용 공간 등이 필요함
- 영상 작업과 연계하는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미디어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됨. 필요한 경우 개인 장비를 가져와서 작업하지만, 영상 작업이 가능한 고성능의 컴퓨터를 대여할 수 있다면 활용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음. 영상 촬영과 관련된 카메라, 짐벌, 스캐너 등 고가의 장비 대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개인 작업실에 놓여있는 작품들을 옮겨서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용 보관장소가 있다면 작업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

[입주작가 인터뷰 내용 재구성]

[금천예술공장의 경우]
별도의 공용 창고를 운영한 적이 있으나, 장기 방치되는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공간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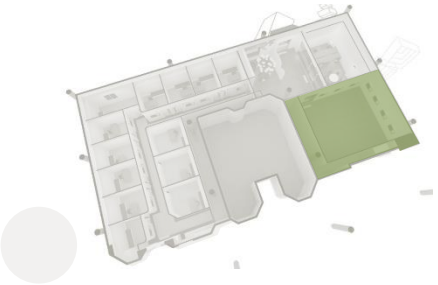
"창작공간에 목공/3D프린터 등 장비를 잘 아는 전문가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기계를 쓰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고, 사용하다 다치거나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관리만 하시는 분은 같이 있어 주신다고 한들 둘 다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테크니션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내용 발췌]

팹랩(Fab Lab) 서울

이슈 2-1



전시/교류 공간

실험적인 예술작업을 담아내는, 확장성을 담보한 공간

- 잠실창작스튜디오가 모든 예술 장르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하고, 가능성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됨. 비장애인 예술가나 장애인예술가나 예술에 대한 욕구는 동일함.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함.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한 확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개인 창작공간 외에도 공동 창작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함

- '잠실'에 오면 국내 장애예술의 정점을 볼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갖춘 공간이 되었으면 함. 그렇다면 전시/공연 공간까지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다양한 연습이 가능한 실험의 공간이 우선 있어야 함. 다방면의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장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시각 예술 외 다른 장르까지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바닥의 재료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했으면 함. 대학로 이음센터에도 연습실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간이 한정적이라 항상 대관이 밀려 있는 상황임

- 입주작가 스튜디오 못지않게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필요함. 워크샵 및 교육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장애창작자나 장애학생을 포함한 예술교육과정의 학생에게는 워크샵이나 교육의 형태도 필요하지만 직접 작가와의 만남이나 예술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잠실에서 진행했던 교육사업 중 공간적 애로사항이 있다면, 스튜디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작가와 학생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다는 점. 잠실창작스튜디오 내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인식은 적었음.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입주작가 인터뷰 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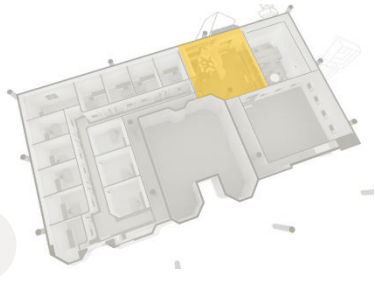
"평소에 아동/청소년들이 예술가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일반적인 예술교육 과정을 통해서는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강사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이 학생들이 정말 만나고 싶은 예술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해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실에서 공간적으로 열려있는, 개방성의 구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인터뷰 내용 발췌]

이슈 2-1



공유/편의 공간

다양한 층위의 상호작용 및 편의성, 개방성을 구현한 커뮤니티 공간

- 현재 잠실창작스튜디오 내에선 작가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앞쪽 로비 뿐임. 보통 스튜디오를 떠올려보면 주방 공간에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의 상황이 일어나는데,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함
-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개방되어 있는 형태라서, 전혀 다른 목적의 모든 방문이 지금의 공용공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작가들이 온전히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개인 작업공간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공간, 완전히 오픈 된 공간으로 개념들이 분리되어 설계에 반영될 필요 있음
- 활동보조인, 보호자가 있을 곳이 사실상 없는 상황임. 누군가 함께 오거나 방문한다면 작가 스튜디오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인데, 작업과 활동보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공유공간들이 너무 오픈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게 됨. 공유공간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 보다는 작은 공간이라도 티테이블처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입주해 있는 작가가 아니더라도 졸업작가 등 입주작가가 아닌 장애예술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나 사물함, 상시적인 기고함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됨
- 작업 도중에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음. 나름 적응하고 있으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번 이동하는 점도 어렵고, 화장실이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인들과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불편함. 샤워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발생함

[입주작가 인터뷰 내용 재구성]

“작가들이 함께 쉬는 공간이 너무 크면 또 되게 민망해서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약간 닫힌 공간이면 거기서 TV도 보고... 밥 먹는 작가 있으면 옆에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 저녁에는 같이 드실래요?’ 뭐 이러면서 같이 요리하면서 친해지고 그렇죠.

레지던시가 물론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들끼리 친해져서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협업을 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기능이 중요한데. 공유 공간을 잘 마련하면 그런 작가들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내용 발췌]

[이슈 2-2]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및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잠실종합운동장 內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효용과 한계

잠실종합운동장 안에서의 접근성, 인접한 공간들과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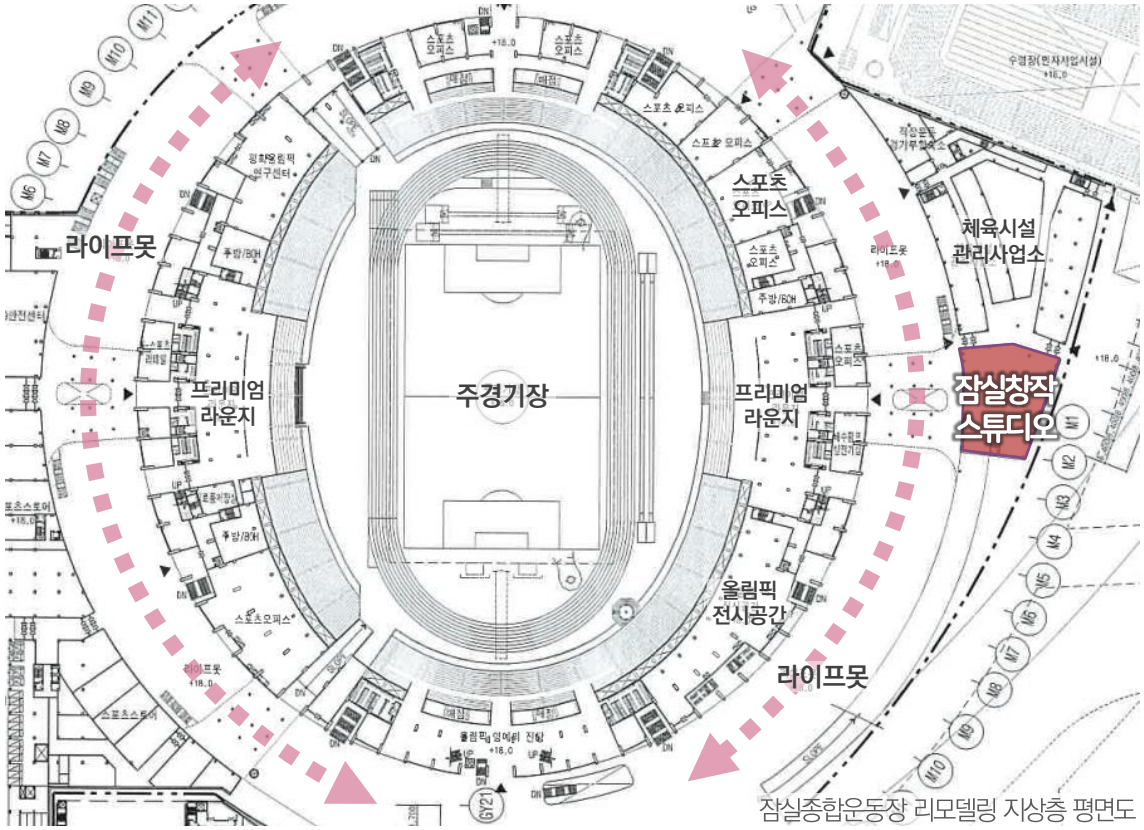
시민친화적 공간의 확대에 따라 달라지는 장소성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이후

현재와 비슷한 위치에 조성되나, 주변 시설과의 관계는 재구성될 예정

면적은 약 792㎡로 현재보다 1.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상의 잠실창작스튜디오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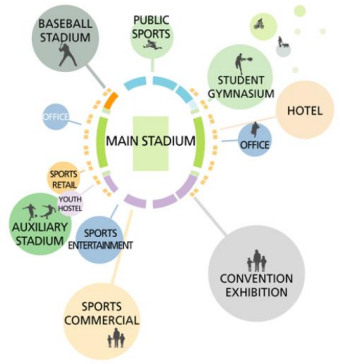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지상층 평면도

Life Moat

지상층 레벨에 조성되는 일상생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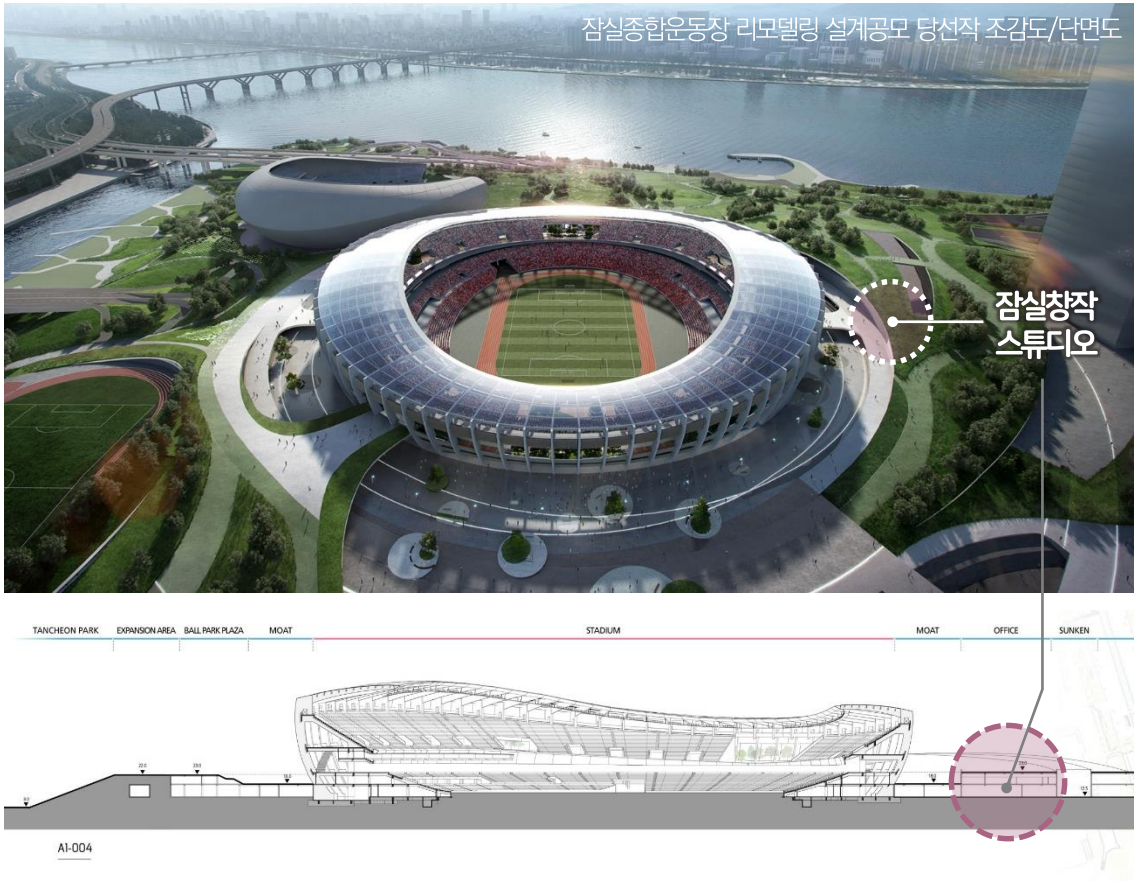
-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설계공모 당선작에 제시된 공간 구성 개념으로, 당선된 이후 조정된 도면에서도 '라이프 못'이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음
- 주경기장 1층(지상층) 내부 시설을 중심으로 스포츠, 생활체육, 업무, 이벤트 등 다양한 일상행위가 365일 이어지는 원형의 고리 모양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임



운동장을 순환하는 '라이프못'과 인접하여, 공간 내 개방적인 일상활동 비중의 확대 예상됨

외부 공간은 한강시민공원까지 녹지로 연결되며, 운동장을 순환하는 '라이프못'과 인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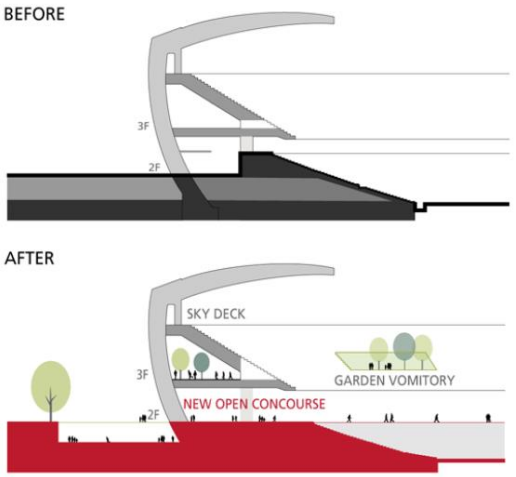
■ **개방된 일상생활공간과 접한 위치에 조성되는 잠실창작스튜디오**



Life Moat

지상층 레벨에 조성되는 일상생활공간

- 데크로 인해 숨겨져 있던 지상 레벨을 개방하여 밝고 활기찬 접근 동선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다이나믹한 공간을 조성함
- 지상부는 보행 전용, 차량은 지하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됨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따른 입지환경의 변화와 고려사항에 대한 대응 필요

전반적으로 일상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공간/운영방향 측면의 재검토

■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환경 측면의 기회 요인과 고려사항**

- 리모델링으로 인한 지상부 보행 환경 개선으로 인해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이르는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잠실종합운동장 내외부 녹지공간의 확대와 한강시민공원까지 연결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공간 성격이 보다 강화되고 잠실창작스튜디오와의 접점 또한 확대될 수 있음
- 기존 시설보다 넓어지는 면적과 공간 재구성에 따른 창작공간, 편의공간 등의 규모 확대와 시설 보완이 가능함
-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동남권 재구조화 등의 이슈와 더불어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음

"처음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왔을 때를 떠올려보면,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이 운동장 내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종합운동장이라는 물리적으로 거대한 공간이 대중을 끌어모으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의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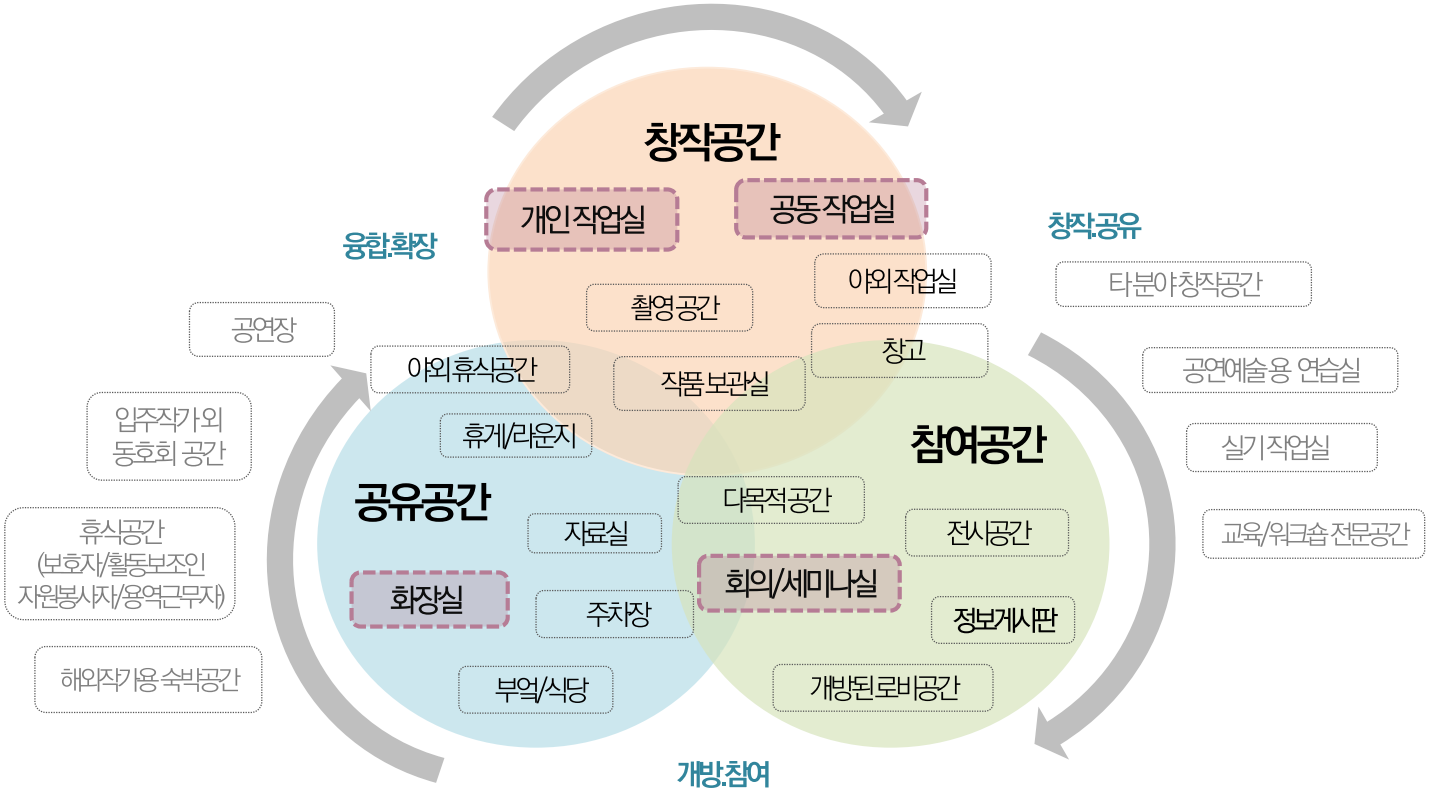
- 기존의 다소 한적한 공간환경 속에 유지되던 창작공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와 운영 방향성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함
- 시민들과의 접점이 많아지는 입지적 특성의 변화와 주변 공간/시설과의 관계 재설정 여부에 따라서 자칫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기능적 공간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야외 작업장을 대체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내부에 모든 시설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가 과다해 질 수 있음
- 잠실종합운동장의 전체 영역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일관된 체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장소적 특성과 공간구성의 특별함"] 2

- 창작/참여/공유 공간 모든 영역에서 현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입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제한된 공간을 활용하여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집중하는 것이 **이용자의 폭을 넓히고 장애예술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될 것임
- 창작공간의 **쾌적함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인작업실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유공간의 규모와 질 또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공간의 장애인 지원이란 곧 **서로 다른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공존을 위한 배려가 담긴 공간**을 조성하고, 서로 달라서 잘 모르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과 장애예술의 실험적인 시도와 장르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여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그룹인터뷰/설문 2] 잠실창작스튜디오 각 영역별로 필요한 공간/시설에 대한 의견



- **[창작공간]** 영역에서는 〈작업실_개인/공동〉에 수요가 가장 높음. 개인 작업실의 경우, 충분한 사용시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작업대, 가구, 싱크대 등의 시설에 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임
- **[공유공간]** 중에서는 〈화장실〉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음. 현재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구조상 가장 불편한 점이기도 하고, 입주작가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참여공간]** 영역에서는 〈회의/세미나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 정보게시판이나 '빈 공간'에 대한 의견도 있어 가능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유공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슈 3]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프로그램과 협력 체계”

[이슈 3-1]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슈 3-2]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3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프로그램과 협력체계"]

[이슈 3-1]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단계별 운영 프로그램 체계/프로세스

장애예술 창작 조력자 등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사회적 담론 형성과 발신지로서의 역할

장애예술 입주작가 공모 및 창작지원, 장애·비장애 동행 프로젝트와 외부자원 연계 선순환 구조 마련

외부자원의 연계가 증가하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사업의 안정화, 동행 프로젝트의 브랜드화

■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프로그램 구성**

장애예술 입주작가 공모 프로그램

- 레지던스는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운영 시작해 2020년 현재 11기 입주작가 12인이 활동 중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다 2013년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화와 함께 리모델링, 재개관하며 원활한 활동 여건을 갖춤
- 입주작가를 중심으로 장애예술과 예술현장 전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방법을 모색해옴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 서울 예술인 플랜(2017~2020)의 일환으로 시작된 신규사업
-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을 무대로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가 개인 및 단체를, 활동 장르, 경력,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적인 지원 방식을 차용해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예술적 외연 확대를 가져옴
- 2017년 시작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한편 평균지원금 증액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 프로젝트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담론을 형성하고, 공동 창작 영역을 확장하여 서울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신규 프로젝트
-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기존 사업과 연계한 서울문화재단 전체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 중
- 2019년부터 포럼, 전시, 연구의 방식으로 현장과 예술, 지식 축적 전반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지적, 활동적 에너지를 모아내고 있음

외부자원 연계

- 〈프로젝트A〉 등 주요 장기 사업과 이와 관련한 기업 기부 안착
- 2018년부터는 제휴협력기관을 확대하고, 기부 형태를 다양화하기위한 노력에 집중해 성과 나타냄. 기부금 유치 외에도 입주작가의 전시 무상 참여 채널 확보, 외부 사업 지원금 유치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 조성 및 절감하고 있음
- 또한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협력 체계 다양화

■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시기별 구분

~2011

재단 운영 이전 시기
: 단순 지원금 배부, 관계맺기 방식의 한계

2011~2013

재단 운영 시작~리모델링
: 외부 기관 연계 활동, 리모델링으로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

[2011년]
– 굿모닝스튜디오 런칭

[2013년]
– 프로젝트A 런칭
– 운영위원회 1기 발족

"작가들의 자리를 분류해 놓은 사무실 칸막이와 보기에도 무거운 커다란 책상, 의자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 **좁은 책상에서 각자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특히 3기 때 작가님들이 죽이 잘 맞고 저 스스로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1기(장애인미술협회 운영) 때에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꿈도 못 꾸었죠. **입주 작가 개인별로 전시를 할 때 100만원씩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지원에서 소외된 작가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12명이 작가 한 명당 지원금 100만원씩 받아 작업실 옆에 있는 전시실에서 릴레이 식으로 개인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매월 성과표를 작성해 서 제출**해야 했는데,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작가들에게 더 작품에 열중하게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운영주체가 바뀌고 나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였죠." (김병일, 1~5기)

"**스튜디오 안에서만 하던 전시가 2012년에는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공공기관의 갤러리에서 전시해 오다가 이후에는 **미술관으로 옮겨서 전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환골탈태 수준이죠."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갈 때 잠실창작스튜디오의 명칭에 어울리는 구색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리모델링할 때 입주를 했어요. 입주공간이 **개인적인 공간과 미디어작업, 도예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작가가 가진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 10주년 기념 백서 中 발췌]

이슈 3-1

2013~2016

인적 연계 : 인큐베이팅, 외부 전문가 연계

[2015년]
- 멘토링, 판화 교육강좌 신규개설
- 기업 후원사업 계약 체결 및 재능기부 참여 연장 및 활성화
- 대관제도 개선

2016~

작가/운영 전반에서 자체 움직임 활발

: 작가들 간 자발적 예술성 담론 형성, 잠실 자체 프로그램 기획 확대

[2016년]
- 전문가 연계 멘토링 중심 입주작가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
- 운영위원의 사업 연계 강화
- 기획전 미술관개최(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 갤러리)

[2017년]
- 장애인 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 해외교류 발판 마련–한·영 장애예술가 리더십 개발 워크숍 Sync

[2018년]
- 제휴협력기관 확대, 기부형태 다양화
- 수화통역사 배치, 운영으로 청각장애인 소통 지원
- 한양여자대학교 협력 입주예술가 아트상품 출시 등

[2019년]
-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운영 체계화
- 같이 잇는 가치, 상호티칭 워크숍 등 장애·비장애 네트워킹 확대
- 장애·비장애 동행프로젝트 추진체계 운영방안 마련
-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장애예술인 참가
- 산학협력을 통한 상품 제작(한양여자대학교)

"2014년도에 6기 입주작가 입주가 끝날 무렵, 외부 전문 큐레이터의 조언을 1대1로 받 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5기와 6기 때 다양한 미술 전시와 레지던시 공간 방문으로 작가님들과 함께 했었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특히 〈한걸음, 한거름〉을 통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영은미술관을 방문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016년에 입주를 하고 나서 입주작가들의 정체성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장애인 작가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공간이보다는 작가의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 생각해 장애라는 이슈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작품으로서 우리를 얘기하자고 제안하고 〈작가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장애는 작업의 모티브 또는 주제가 될 수 있어도 우리에게 작가로서의 타이틀이나 꼬리표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했죠."

"운영주체가 바뀐 이후부터는 자체 프로그램 기획에도 많이 신경 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민과 작가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 원예힐링 프로그램 〈쁘띠 풀놀이야〉(2016), 외부 예술가와의 교류 및 마케팅 수업 등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입주작가를 많이 알리려고 하는 노력에도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요. 다양한 아트페어, 외부 기획자와 함께하는 입주작가 기획전시와 외부 갤러리와의 네트워크도 점차 형성되어 가면서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 졌습니다."

"또한 입주작가가 아니더라도 작업 공간이 절실한 작가에게 가능한 대로 대관을 해주고 있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운영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 10주년 기념 백서 中 발췌]

[참고 자료] 잠실창작스튜디오 사업 운영 주요 내용(2015~2019)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운영	입주작가 **창작 및 교육지원 비중 제고** -멘토링, 판화 교육강좌 신규개설 -입주작가 교육강좌 지원 범위 확대 입주작가 기획전시의 외부 전문가 연계	**전문가 연계 멘토링** 중심 입주작가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 입주작가 멘토링 성과 기획전시 발표 입주작가 기획전시 작품제작비 지원	**신규 장애인 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외부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안정적 운영, 체계화 전문성 강화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안착을 통한 입주작가 역량 홍보, 인지도 향상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분리, 공간기획2팀의 안정적, 체계적 운영 및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같이 잇는 가치, 상호티칭 워크숍 등 장애·비장애 네트워킹 확대, 서울형 장애예술지원모델 제시 장애·비장애 동행프로젝트 추진체계 운영방안 마련, 전 창작공간 배리어프리 추진 기반 조성
제휴 및 협업	**기업 후원사업 계약 체결** 및 재능기부 참여 연장 및 활성화	기업 지속 후원 및 안정화 내부 부서간 연계 및 협력 강화	기업의 지속 후원/안정화 **해외교류** 발판 마련, 대외 협력 교류	제휴협력기관 확대, 기부형태 다양화	효성그룹 2년 연속 기부 안착화 조아제약 7년 연속 4천 만원 기부금 유치, 누적 기부액 2억 8천만원 **국립현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장애예술인 참가**
운영위원회	3기 운영위원회 발족 -분야별 전문위원 5인 위촉	운영위원, 입주작가 간 교류 운영위원의 사업 연계 강화	5기 운영위원 위촉 - 전문 운영위원 의견수렴 및 **사업 연계 강화**	6기 운영위원회 발족, 신규(장애인 당사자)위원 위촉, 장애예술 현장의견 수렴	7기 운영위원회 발족, **시각예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기획자, 큐레이터 선임**으로 현장과의 연대성 강화
시설운영	내부 입주시설 개선 **대관제도 개선**	입주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통한 운영안정화 잔여 대관일정의 활성화	시설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 응급 훈련 실시	수화통역사 배치, 운영으로 청각장애인 소통 지원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력으로 입주예술가 아트상품 출시** 등	수어통역사 상주&문자통역 병행 지원 배리어 프리 실천공간 한양여자대학교 협력 입주예술가 아트상품을 서울문화재단 굿즈로 별도 제작,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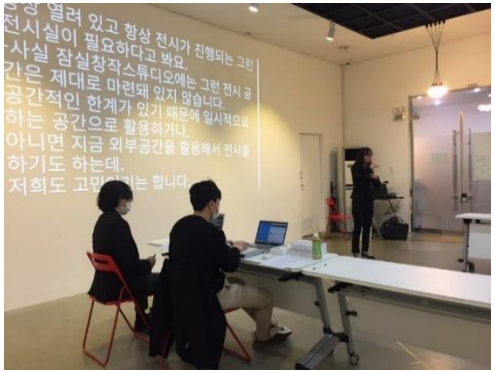
※ 서울문화재단 사업운영 결과보고(내부자료) 발췌, 서울문화재단. 2015~2019

장애예술 창작 단계에 따라 창작 조력자 등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대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여러 단계의 통역과 접근성 지원

■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 그룹인터뷰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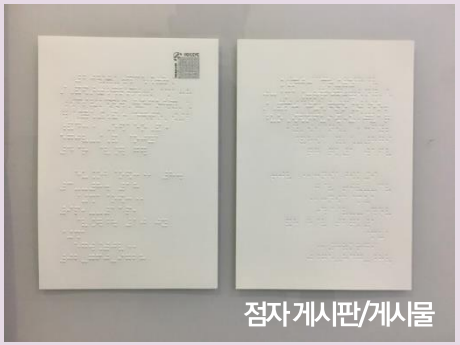
문자통역

수어 및 음성통역

- 6명 참여자 중 청각장애인 2인 참석으로 4명의 통역지원 이루어짐
- 청각장애인 각자 익숙한 대화방법이 달라 수어의 음성통역 이루어짐. 또한 발언 배경과 예술 분야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전문적 영역이므로 문자통역에 이해를 돕기 위한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진의 통역참여 이루어짐
- 현재 잠실창작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각종 장애예술 관련 라운드테이블과 포럼 행사 진행경험에 따른 지원인력과 기술지원 노하우 축적중에 있음
- 같이잇는가치 등 포럼행사 진행 시 발언자마다 문자통역, 수어통역, 음성해설 이루어지고 있음

"다른 작가들과 회의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어도 어려워요. 잠실에서는 운영자분들께 부탁드릴 수 있지만 금천에서 잠실처럼 다른 작가랑 같이 작업하기 어렵죠."

[인터뷰 내용 발췌]



점자 게시판/게시물

장애예술 관련한 사회적인 담론을 현장의 언어로 제시하는 역할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운영방안과 공간의 재구성 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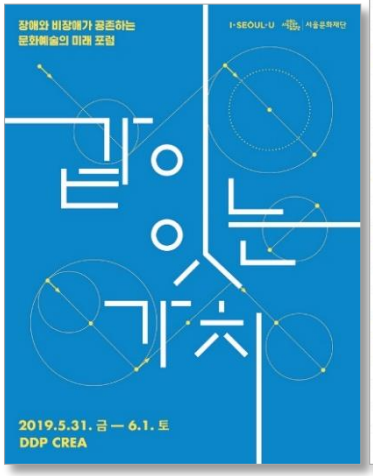
■ 사회적 담론 제시의 역할

- 다양성과 소수자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대표하는 재단의 공간으로서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이 잠실스튜디오의 핵심적기능이 될 수 있음
- 시각예술장르 이외에도 서울문화재단의 장애인 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과 장애.비장애 동행 프로젝트 '같이잇는가치' 사업의 실행이 잠실창작스튜디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같이잇는가치'의 경우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위주 참여한 프로젝트임에도 DDP,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과 같은 외부공간에서 펼쳐짐
- 입주작가와 관계자만 찾아오는 공간으로부터, 장애예술의 산실로서 자유로운 협업이 이루어지고 실험적 예술을 선도하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변화를 검토해볼 수 있음

"잠실창작스튜디오의 많은 사업들을 보고 장애예술 관련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운영에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하는 일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어떤 국내 장애예술담론을 형성하는 중요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인터뷰 내용 발췌]

2019같이잇는가치 포스터(좌)
2020같이잇는가치 포스터(우)



[참고 자료] 2020 같이있는가치 개요

2020 같이잇는가치 WE ARE LINK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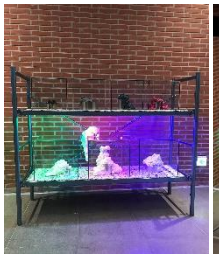
- 문화예술 오픈포럼: 10월 16일(금), 10월 17일(토)
- 기획전시: 10월 16일(금) ~ 11월 4일(수)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서울시 중구 칠패로 5)
-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후원: 조아제약, 효성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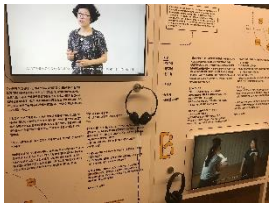
▪ 문화예술 오픈포럼

-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지하3층 하늘광장
  - 〈문화예술 오픈포럼〉은 '장애·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담론 형성과 '장애예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창작 방법론 모색을 위함. '일상'과 '창작'의 영역 속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으고, 장애예술에 대한 가치를 탐구하여 '공존하는 삶과 문화예술의 미래'를 모색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 2020 오픈 포럼은 〈일상의 조건과 창작으로의 연대〉를 주제로 진행
  - 1일차: 일상의 조건
    (장애인운동활동가,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창작자 발제, 0set공간구성 프로젝트 발표)
  - 2일차: 창작으로의 연대
    (아티스트토크, 무용/연극 퍼포먼스, 오픈 토크)

▪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기획전시 《Becoming { }》

-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지하2층
- 2020년 굿모닝스튜디오 입주 작가 열두 명의 작업으로 구성된 기획전





▪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창작워크숍 《Stereo Vision》

-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지하1층
- 서울문화재단 4개창작공간(금천예술공장, 서울무용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입주 예술가 공동창작프로젝트

▪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A》

- 전시제목 《동심원(圓)》
- 장소: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지하1층
- 조아제약 후원,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장애아동을 발굴하여 일대일 멘토링 지원

[이슈 3-2]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시각예술의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협력 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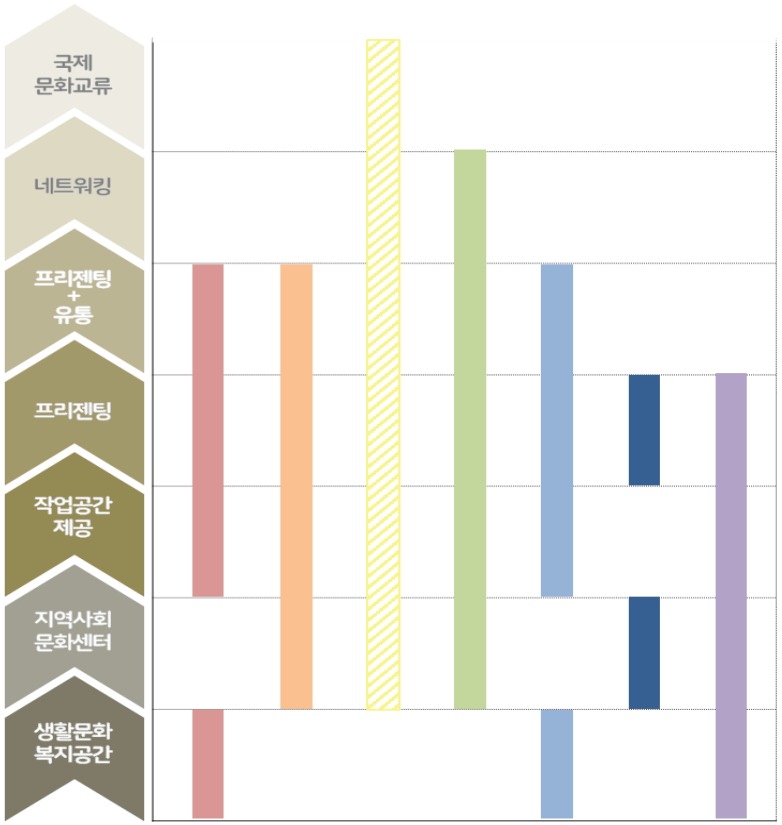
장애예술 협력 조력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선도적 모델 제시

장애예술 창작/향유 환경을 고려한 단계별 협력 체계 마련

장애예술 창작활동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및 협력 범위 확대

■ 창작지원 단계별 유형 구분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운영 방향성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주요 장애예술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의 각 단계별 역할로 기능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비교함
크게는 생활/복지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작업공간 제공과 프리젠팅/유통의 기능, 네트워킹/국제교류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기관은 없으나 영국의 토인비 스튜디오 같은 경우 생활문화/복지공간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 걸쳐 작동하고 있음



Gateway Arts (미국)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개별화된, 예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술 분야 커리어를 통한 의미있는 삶 지원"
Art Enables (미국)	장애를 가진 예술가가 작품으로써 창작, 판매, 수익 창출의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아트 갤러리이자 예술프로그램 "장애를 가진 예술가가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프로그램 구성"
Toynbee Studios (영국)	"Artsadmin은 예술가가 경계 없이, 더욱 대담하고 영역을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하고, 이를 지역, 국내, 국제의 관객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민들레의 집 (일본)	"'예술'과 '돌봄'의 기준을 두고 다양한 범위의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 통합에 열의를 갖고, 공공에 예술과 시민 문화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공공성이 강한 일들을 통해 국내외의 문화적 운동을 네트워킹한다"
야마나미공방 (일본)	"모든 이들은 각자를 행복하게 하는 고유의 일이 있다. 그들은 그들 자체로 행복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나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정립하고 표현하며, 다른 누구도 이를 왜곡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변화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스윙 (일본)	좁은 의미의 장애인 복지를 넘어 편견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예술이자 교육이자 운동(movement, campaign). 운영철학인 'Enjoy! Open !! Swing !!!'에 따라 활동이 전반적으로 유머러스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경향이 있음
아틀리에 코나스 (일본)	함께 장소·환경을 만들고 보람을 느끼며 사회와 연결을 통해 가능성 모색.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공간에서 공동 활동을 하며 주 5일 이곳에서 창작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함께 함

장애예술가로서의 성장과 예술창작 그룹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 제공

잠실창작스튜디오를 통한 예술가 간 협업 프로젝트의 발생과 창작 방법론 모색

- 공동창작 워크샵 중 느낀 점이 서로 공간과 생각 등을 공유하면 융화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 공동창작 결과물 자체의 가치보다도 실험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 있었음
- 공연예술분야에서는 시각예술과 달리 기본적으로 타자와 협업이 전제되다보니 과정상 각자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이 깊이 이루어지는 점이 있음. 결국 장애예술 현장에서 함께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작가활동에서 인적 조력으로는 올해 진행되었던 비평가와의 매칭으로 작품을 읽어내주는 작업이 효과가 컸다고 보고 있으며 그 같은 작업이 지속될 필요가 크다고 봄. 워크샵도 올해 진행한 작업을 토대로 작가분들의 시도를 완전히 지원하기에는 시간이 짧아 밀도있는 작업이 되려면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 장애인으로서 단체 협회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잠실에 와서 예술활동 네트워크와 구분되지 않을 때 종종 문제가 생김. 본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예술인으로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교류의 기회를 다방면으로 제공하는 일이 중요함
- 장애인 단체활동 경험이 없는데, 작가활동 이후 지체장애인 협회 등에서 연락이 왔음. 결국 몸담지 않은 이유는 단체활동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안에서 자기만족을 끝내거나, 자신들의 이상향을 설정해 놓고 타자를 배척하는 경향성 같은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음. 그러므로 잠실과 같은 곳에서는 예술공간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운영자/리더가 목표를 가지고 외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임

[인터뷰 내용 재구성]

"다른 작가.멘토와의 협업 경험은 장애인 예술가들에게는 소중하며 작품스타일에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시각예술 외에도 미디어하시는 분이나 사운드아트 등 다채로운 전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업자와 만날 기회가 절실합니다."

[인터뷰 내용 발췌]

2020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비평 모음집

굿모닝스튜디오

[참고 자료] 장애예술 관련 소셜벤처 사례

- 콜라보상품 제작 등 수익사업들은 본연의 일을 잘하면 저절로 파생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장애예술 교육참여 등의 가능성 있는 사회적 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면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차별성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봄
- 역할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 예를 들어 외부 교육참여 같은 활동을 한다면 현재 운영인력만으로는 부족함.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 그러한 일을 잘 수행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 분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등이 프로그램 설계, 추진하고 지속성을 가져갈 필요 있음
- 공동창작작업 중 들은 바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음. 상시적으로 작가분들과 대면하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필요가 있다고 봄. 상담 전문인력까지 상주하는 일이 어렵다면 장애예술 협업 경험자가 동료로서 자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함

심층인터뷰 中

[장애예술 관련 소셜벤처 사례]

Handspeak

청각장애,농아인의 문화빈곤 해결 위해 만든 창작집단

업체명	핸드스피크
운영진	장정윤(대표), 김지연(연출가)
주요사업	뮤지컬, 연극, 댄스 퍼포먼스, 수어랩, 단편영화, 디자인 상품 등 수어 관련 컨텐츠
설립연도	2016년 아시아 농댄스페스티벌 참여시작 2018년 법인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홈페이지	handspeak.kr

- 20여 명의 농인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체적으로 예술을 기획하고, 수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 '아시아 농댄스페스티벌', '홍콩 페스티벌', '프랑스 세계농인축제' 등 다양한 세계 페스티벌 참여

KIMÜ STUDIO

예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 발굴, 디자이너로 성장

업체명	키뮤스튜디오
대표	남장원
주요사업	서번트 아티스트 발굴/교육, 전시 및 굿즈 개발 (일러스트, 패턴, 가방,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 기획
설립연도	2012
홈페이지	kimustudio.com

- 국내외 발 달장애인 지원 단체와 협력해 키뮤만의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미술교육 및 트레이닝을 진행해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
- 일러스트레이터·캐릭터 디자이너· 컬러리스트·편집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참고 자료] 인근 지역 사례

-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는 송파구 내 장애인 관련 공간, 행사,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 모색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아이 갓 에브리띵(1호점)〉, 〈블루웨일(2호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주최하는 〈송파장애인인권영화제〉 등

송파구 베리어프리 카페 사례

- 점자 메뉴판, 점자 블록, 휠체어이동공간
- 장애&비장애 바리스타가 함께 일하는 커피숍
- 카페 인원 중 절반 이상을 발달장애인 채용/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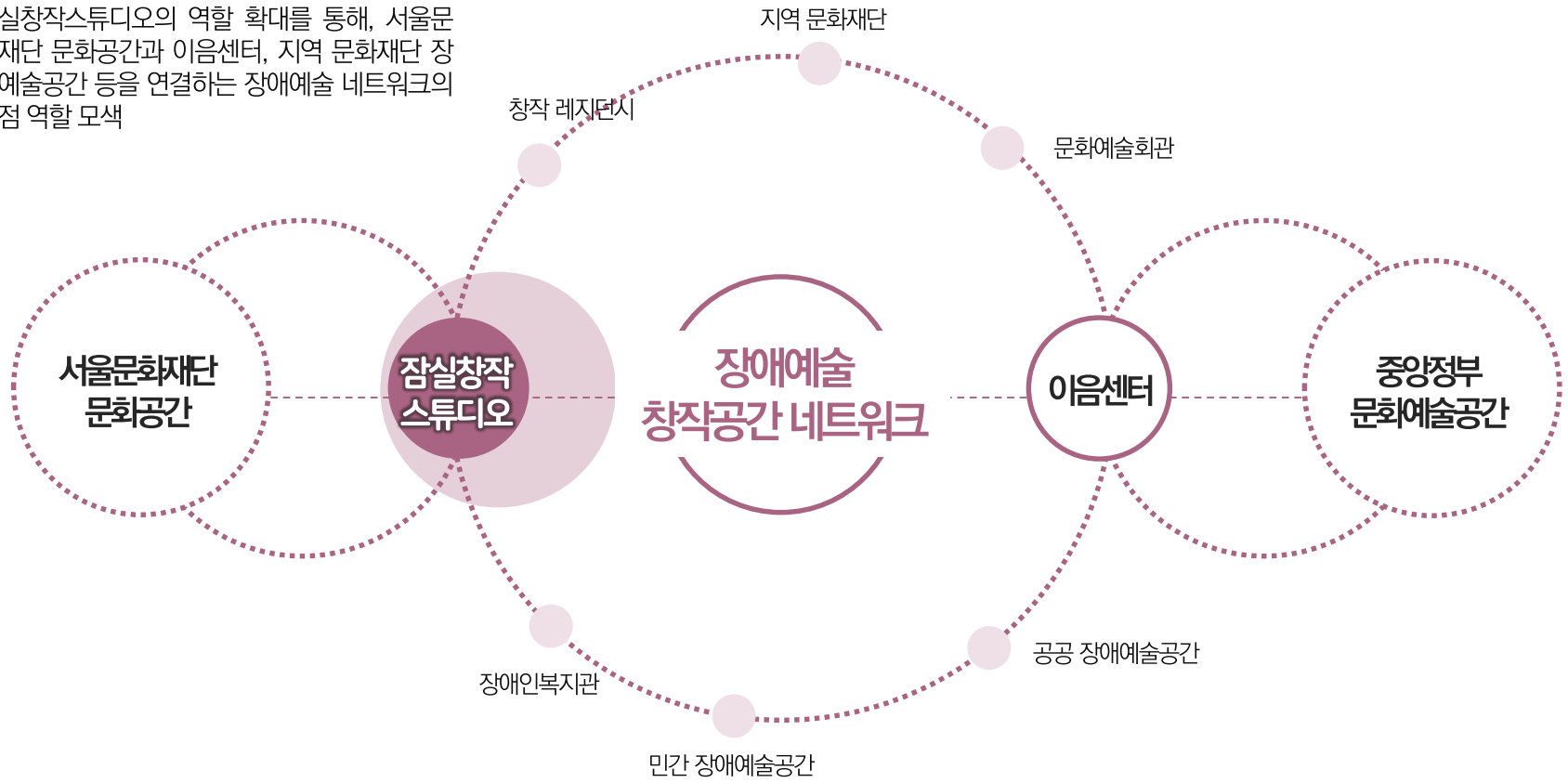
송파구 장애인복지과와 공공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카페 조성/운영

지역 장애예술 창작공간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역할 확장

영역 확장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 내 창작공간, 이음센터 및 지역 문화재단 장애예술 공간 등 연계

■ 장애예술 창작공간 네트워크 체계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역할 확대를 통해, 서울문화재단 문화공간과 이음센터, 지역 문화재단 장애예술공간 등을 연결하는 장애예술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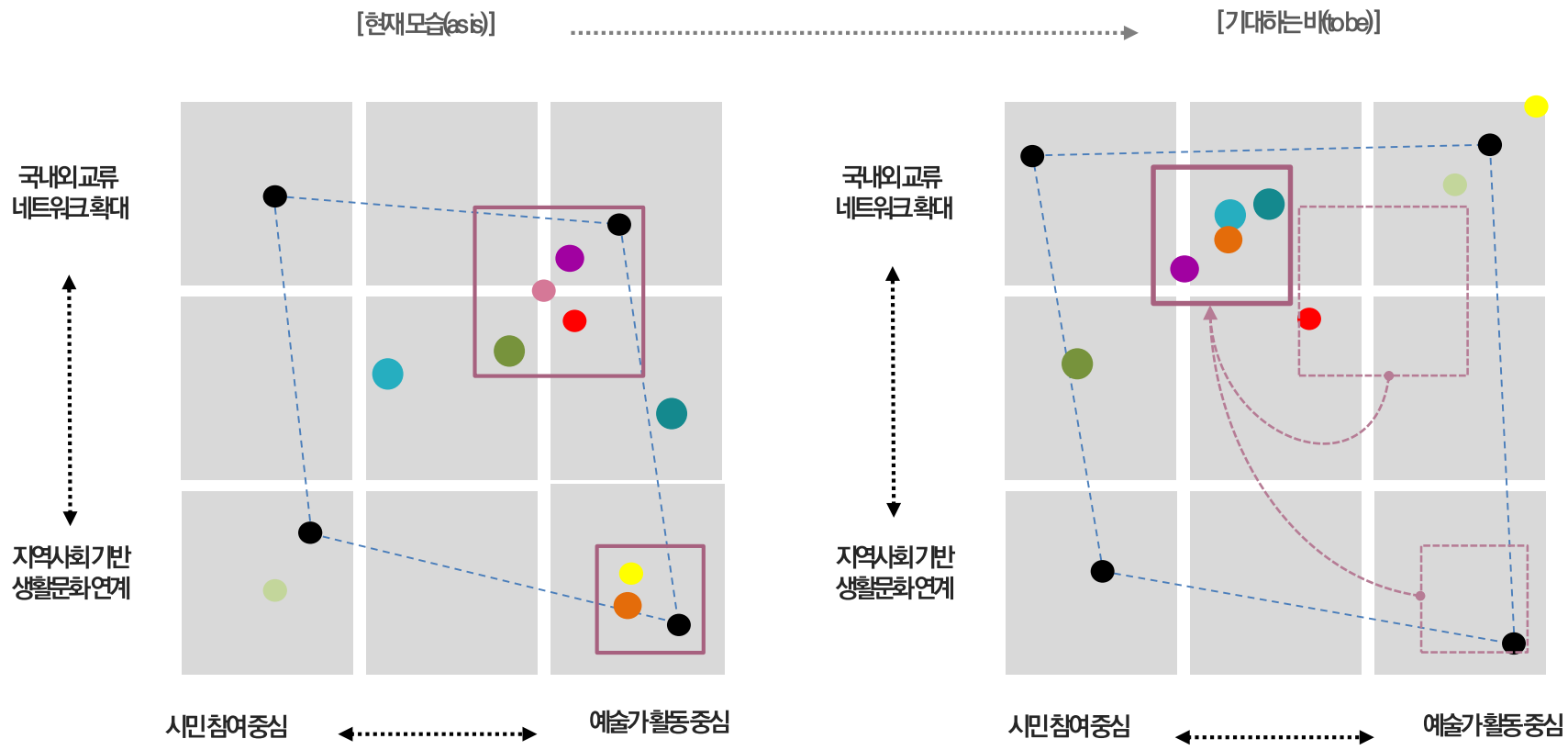


3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프로그램과 협력체계"]

- 장애예술 창작 지원의 큰 방향성과 입주작가 선정을 통한 운영방식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매년 이루어지는 세부 프로그램들은 참여 작가들의 요구와 실제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해 오고 있음
- 작가의 창작활동을 돕는 전문적인 매개자의 양성 모델을 제시한다거나 국제적인 장애예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의 선도적인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사회적인 인식 수준의 변화에 따라 장애예술과 관련한 재단 내 사업과 외부협력/후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장애예술에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음
- 예술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포용하는 공간적 정체성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예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슈를 제기하는 기관으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어,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또한 필요한 시점임

[참고자료]

[그룹인터뷰/설문 3]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프로그램의 현재 모습과 향후 기대하는 바에 대한 의견



- "현재"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좌표는 [예술가 활동 중심]이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문화]와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전반에 분포하고 있음. 이는 현재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주요한 사업/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기대하는 바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술가 활동 중심에서 [시민 참여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 있으며, 지역사회/생활문화 연계 보다는 국내외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쪽으로 방향이 모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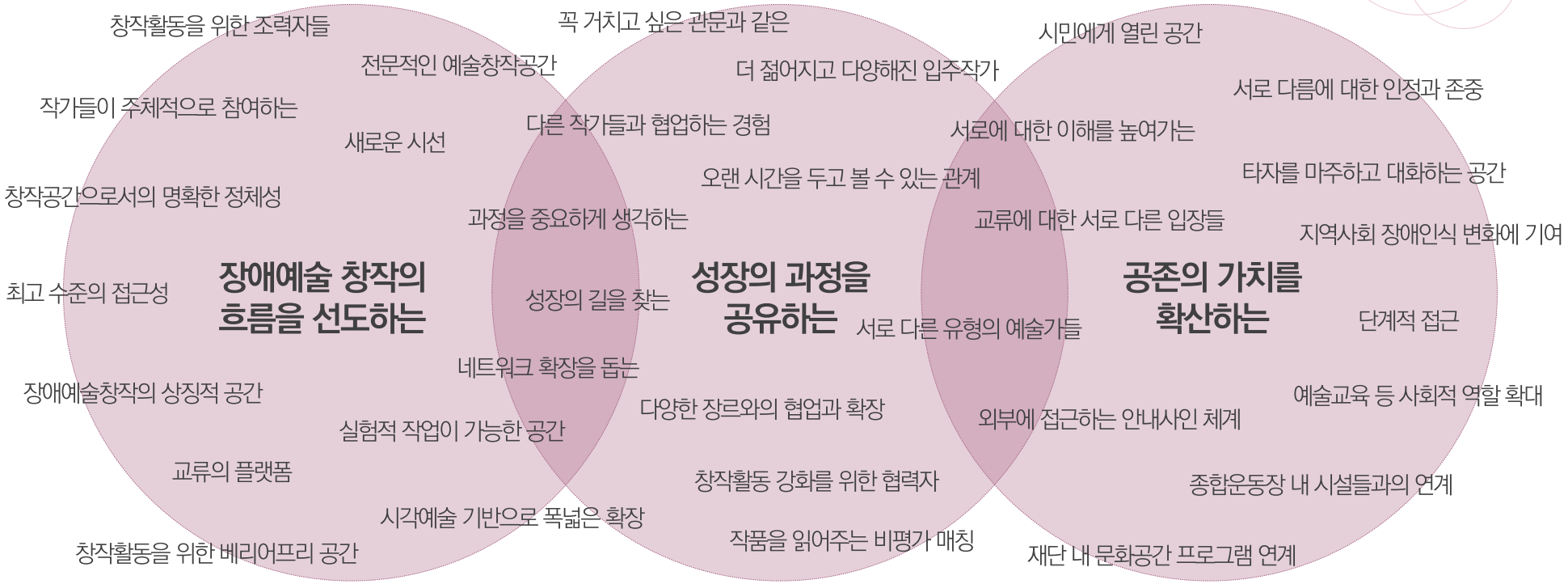
03

기본방향 및 전략

1. 기본 방향 |
2. 주요 전략(안) |

주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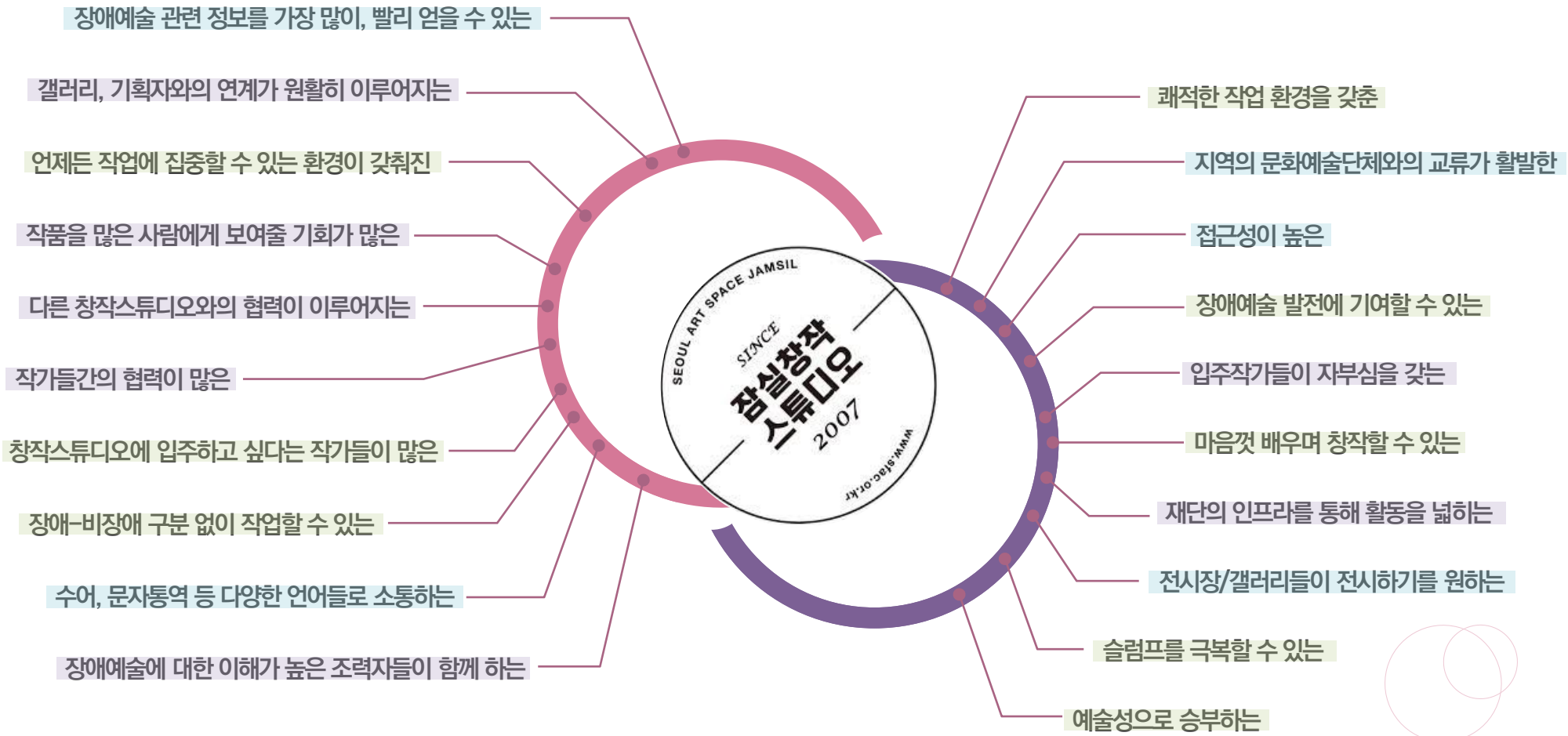
창작과 성장, 공존의 가치 확산을 통해 풍부한 장애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잠실창작스튜디오



20가지 상상

장애예술 창작의 흐름을 선도하는 | 성장의 과정을 공유하는 | 공존의 가치를 확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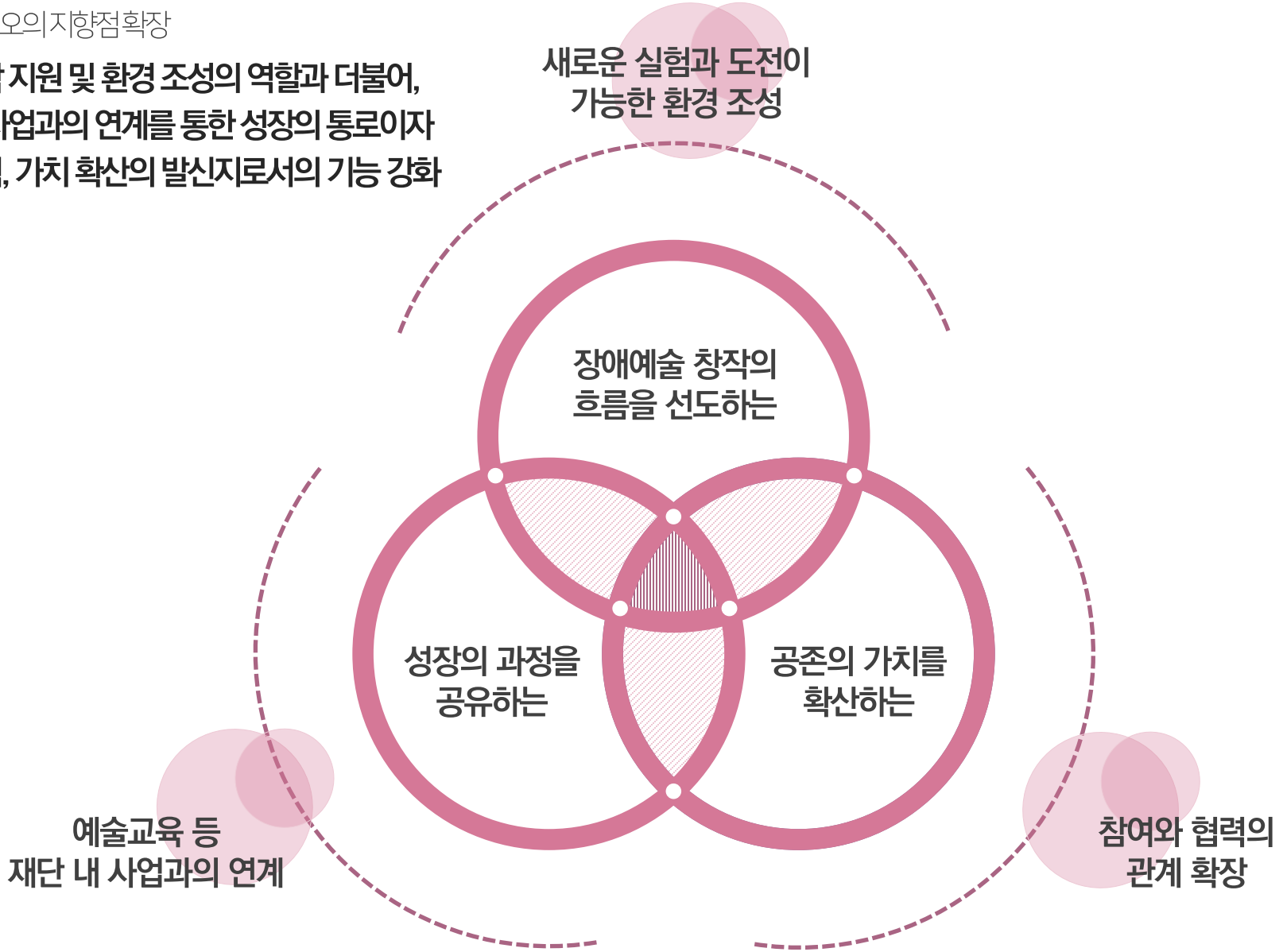
잠실창작스튜디오, 20가지 상상



확장된 방향성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지향점 확장

**장애예술 창작 지원 및 환경 조성의 역할과 더불어,
재단 내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의 통로이자
지역과의 협력, 가치 확산의 발신지로서의 기능 강화**



전략과제(안)

확장된 방향성		전략과제(안)	
방향 1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예술 창작의 새로운 흐름 선도**	전략과제 1-1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전략과제 1-2	장애유형에 특화된 접근성 서비스 강화
		전략과제 1-3	창작 과정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방향 2	예술교육 등 재단 내 사업과의 연계 **성장의 과정 공유**	전략과제 2-1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돕는 매개자 양성
		전략과제 2-2	재단 내 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전략과제 2-3	장애예술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의 노력 지속
방향 3	참여와 협력의 관계 확장 **공존의 가치 확산**	전략과제 3-1	[작가X작가] 작가들의 공유 공간/프로그램 확대
		전략과제 3-2	[작가X시민] 시민들의 참여 공간/프로그램 기회 제공
		전략과제 3-3	[작가X지역] 주요 지역 문화 주체/거점 공간과의 연계

방향 1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예술 창작의 새로운 흐름 선도

#축적된_경험 #상징적_존재 #실험과_도전 #접근성_특화 #아카이브_구축

그 간 쌓아 온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역량과 축적된 경험, 상징성을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장애유형에 특화된 접근성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창작공간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장애예술 창작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함

- 전략 과제 1-1.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 전략 과제 1-2. **장애유형에 특화된 접근성 서비스 강화**
- 전략 과제 1-3. **창작 과정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전략과제 1-1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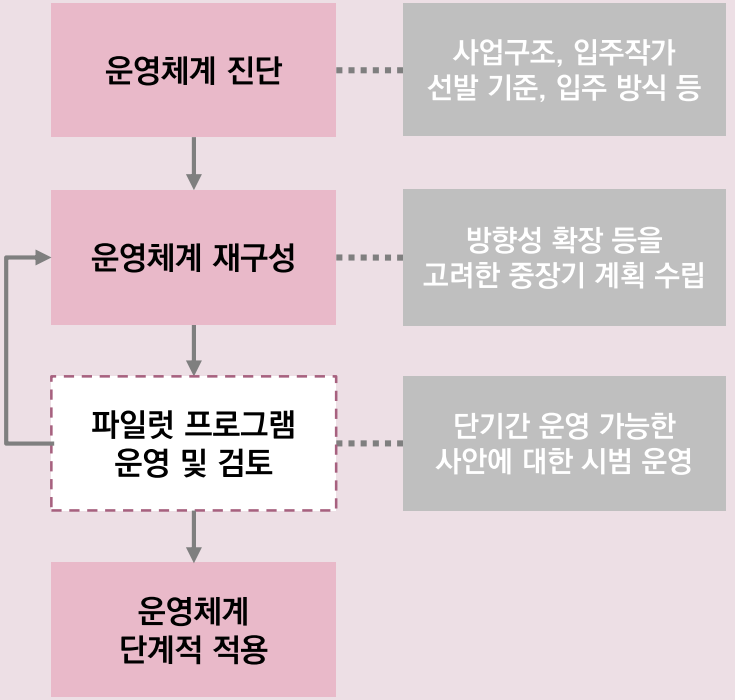
-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작가 선정 및 운영 외에도 최근 지원사업의 비중 확대, '같이 잇는 가치' 포럼의 지속 추진 등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재구성이 필요함
- 기존의 입주작가 선발 기준과 입주 방식, 기간 등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다양한 예술적 실험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함

"창작자로서 실험적인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확실한 장소의 특징을 갖춘다면 다양한 예술인들이 먼저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룹 인터뷰 내용 발췌

[운영체계 진단 및 재구성 프로세스(안)]

- 잠실창작스튜디오의 기존 사업구조와 입주작가 선발 기준과 방식, 기간 등의 운영체계에 대해 확장가능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진단하고 재구성함
- 단기간 적용 가능한 사안은 시범 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함



전략과제 1-2

장애유형에 특화된 접근성 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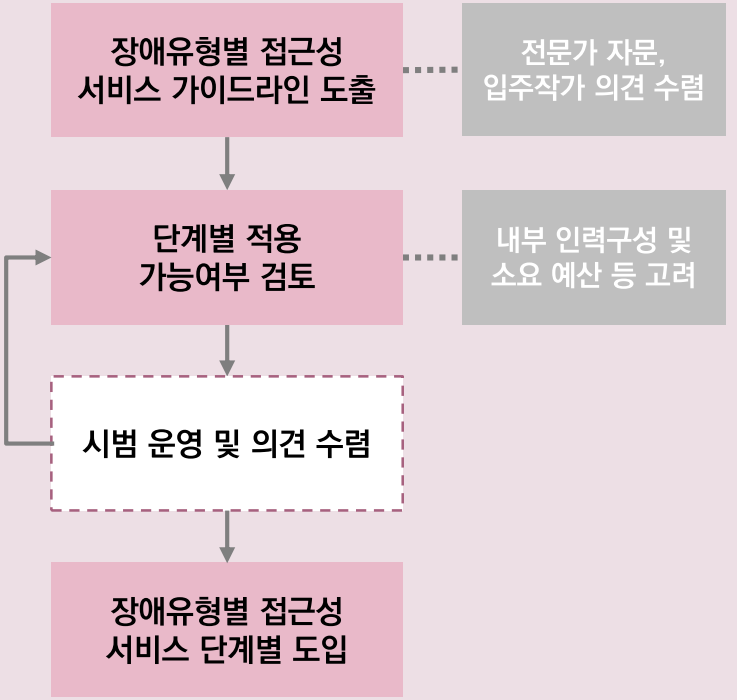
- 잠실창작스튜디오의 특성상 여러 장애 유형의 예술가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지만, 발달 장애와 지체 장애 작가는 '남녀가 다르듯' 서로 다른 유형의 예술가들이며, 동일한 환경과 조건으로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각 장애 유형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최대한 세심하게 선별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입주작가들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안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접근성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장비 구입 등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발달 장애와 지체 장애 작가들의 차이가 너무 확연해요.
사실 보호자가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데, 작가만 놔둘 때 협업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어떤 매개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 그룹 인터뷰 내용 발췌

[장애유형별 접근성 서비스 도입 프로세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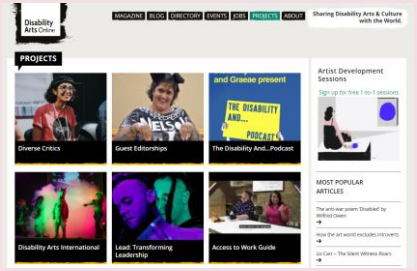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 입주작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애유형별 접근성 서비스 가이드라인 도출
- 잠실창작스튜디오 내부 인력구성 및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적용 가능여부 검토
- 시범 운영 및 의견을 수렴을 거쳐 접근성 서비스 단계별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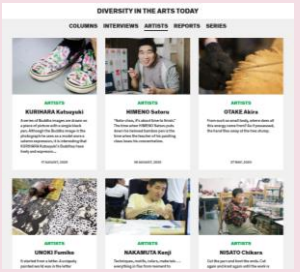
전략과제 1-3

창작 과정의 축적과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의 작품과 활동을 비롯하여, 연간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함
- 작품을 소장하는 대신, 입주 작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품을 온라인 상의 콘텐츠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전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진과 영상 등의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입주작가들의 작품이나 활동들도 기록으로 축적하여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플랫폼의 기능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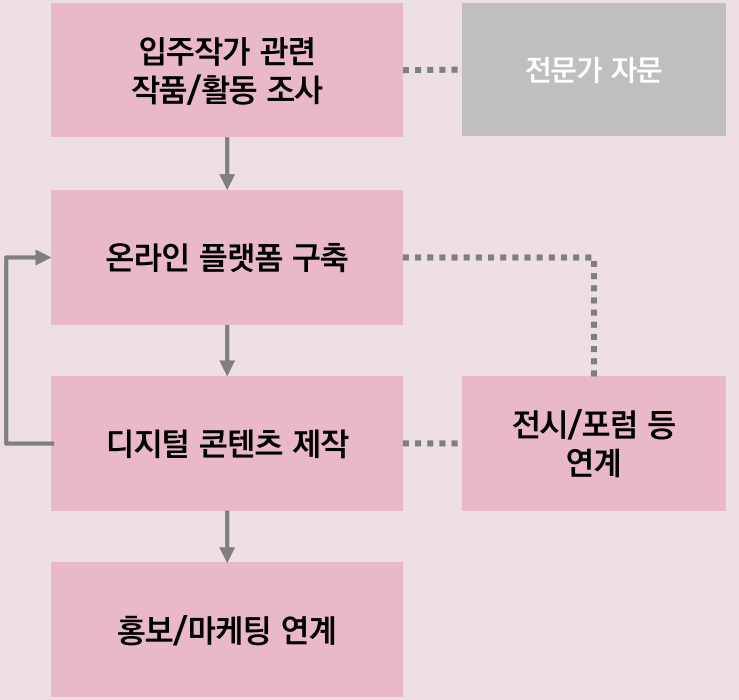
disabilityarts.online/



야마나미 공방 홈페이지

[온라인 아카이브 프로세스(안)]

- 현재까지의 입주작가, 관련 장애예술 작가/작품에 대한 조사 연구 작업 수행(자체 혹은 외부 전문가 협력)
- 잠실창작스튜디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 기존 행사(전시/포럼)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 홍보/마케팅, 작가 협업 등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연계



방향 2

예술교육 등
재단 내 사업과의 연계

성장의 과정 공유

#예술가로서_성장 #기회_과정_공유 #재단의 역할 #사회적 인식 #함께 성장

장애 유형에 따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격차, 한계 지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와 협력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예술가 뿐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사회적 인식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음

- 전략 과제 2-1.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돕는 매개자 양성**
- 전략 과제 2-2. **재단 내 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 전략 과제 2-3. **장애예술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의 노력 지속**

전략과제 2-1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돕는 매개자 양성

-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의 창작과 협력 과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매개자를 양성하고 작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보조/지원의 형태를 제공함
- 스튜디오 공간 내에서 모든 작가들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리적 접근성 지원, 소통 지원, 창작활동 지원 등 다방면의 매개자 양성과정을 마련함

Graeae, 창작조력자 Creative Enabler

- Graeae가 분류한 다양한 형태의 접근성 지원 인력 가운데 Creative Enabler (창작조력자)는 그라이아이의 작업에서 고안된 역할 개념. 장애인 예술가가 작업하는 환경에 필요한, 보다 집중된 레벨의 접근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으로 개인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함
- 창작조력자는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공연 현장에서의 의사 소통 지원 및 촉진이 포함됨.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장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창작/협력매개자 양성과정(안)]

- 단순 창작만 이루어지는 공간적 역할을 넘어 입주작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자를 스튜디오 프로그램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입주해 있는 작가 맞춤형 인력, 공간접근성 지원인력을 시작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매개자 양성 과정을 준비함

주요 매개자 양성 예시

창작접근성 전반 지원인력 양성	창작과정 및 공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유한 접근성 전문인력
의사소통 지원인력 양성	수화 통역자, 음성 해설자, 대필/전사자, 순화자 등
창작 지원 테크니션 인력 양성	작업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시설/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인력

전략과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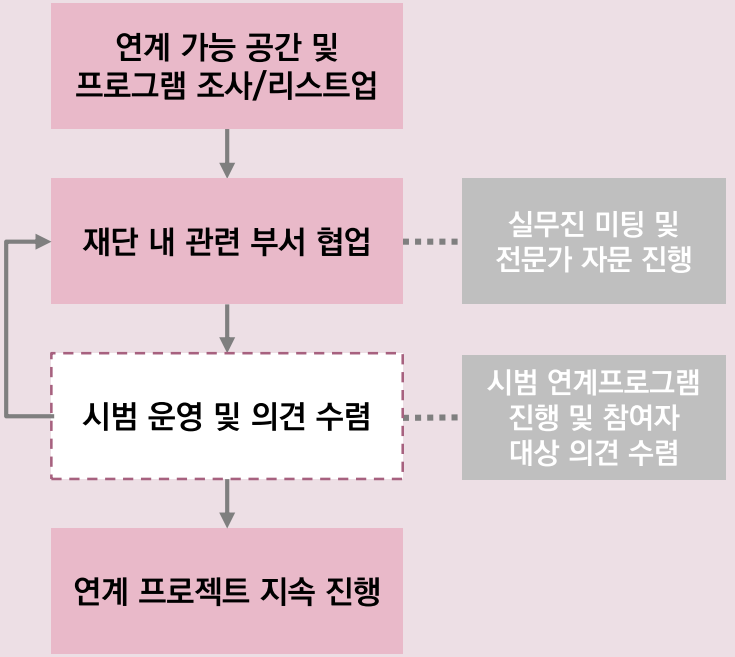
재단 내 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 잠실의 지역적 한정성을 넘어 서울 곳곳으로 잠실창작스튜디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예술교육을 접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 내 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지점을 고민함
-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교육공간이나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예술에 연관된 활동은 기획/운영 차원에서 함께하거나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입주작가들이 TA(Teaching Artist)로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함

> 오히려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장애예술 교육참여 등의 가능성 있는 사회적 모델을 발굴하는데 집중한다면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그룹 인터뷰 내용 발췌

[재단 내 프로그램 연계 프로세스(안)]

-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이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연계가 가능한 예술교육 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재단 내 관련 부서와의 미팅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보다 실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계방식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이후 연 1회 가량의 시범 운영을 시행, 의견을 수렴하여 연계 프로젝트를 지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전략과제 2-3

장애예술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의 노력 지속

- 잠실창작스튜디오는 '같이 잇는 가치' 포럼을 운영하는 등 선도적으로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장애예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예술 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해 가는 사회적 담론 형성의 장으로 역할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같이 있는 가치 포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픈포럼 및 기획전시로 구성되어 있는 포럼의 형태 및 규모를 점차 확대함

We are a project run by two different organis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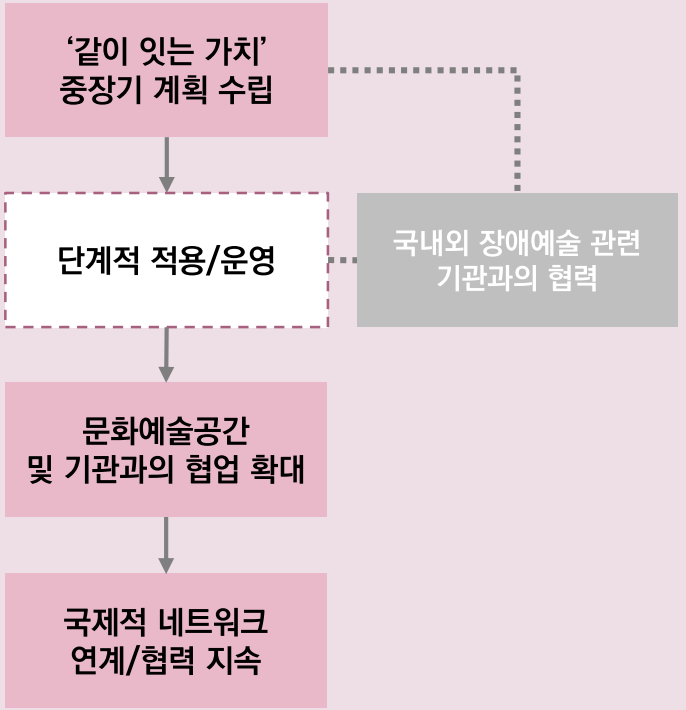
SHAPE ARTS UNLIMITED ARTS ADMIN.

UNLIMITED

- 장애가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영국과 국제 문화예술 섹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패럴림픽과 연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시작
- 2012년 Unlimited의 지향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 의뢰,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에서의 Unlimited Festival 개최 등의 성과로 2013년 영국 예술위원회는 해당 프로젝트 지속 결정, 2년마다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근 2020-2022년 연장 계획 발표됨
- Shape Arts와 Arts Admin이 Unlimited의 수행 조직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페스티벌의 정기 개최, 창작 지원 확대, 국제 심포지움 개최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음. 영국 장애예술 분야의 영역을 확대하며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음

[사회적 담론 형성/확대 운영체계 프로세스(안)]

-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운영의 방향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같이 잇는 가치'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
-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지향성을 담은 포럼을 단계적으로 추진
-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지속 추진함



방향 3

참여와 협력의
관계 확장을 통해

공존의 가치 확산

#장애예술생태계 #작가X작가 #작가X시민 #작가X지역 #가치 #확산

건강한 장애예술 생태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잠실창작스튜디오 내에
작가들이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작가와 시민, 작가와 지역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장애예술이 지닌 가치를 폭넓게 확산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함

- 전략 과제 3-1. **[작가X작가] 작가들의 공유 공간/프로그램 확대**
- 전략 과제 3-2. **[작가X시민] 시민들의 참여 공간/프로그램 기회 제공**
- 전략 과제 3-3. **[작가X지역] 주요 지역 문화 주체/거점 공간과의 연계**

전략과제 3-1

[작가X작가] 작가들의 공유 공간/프로그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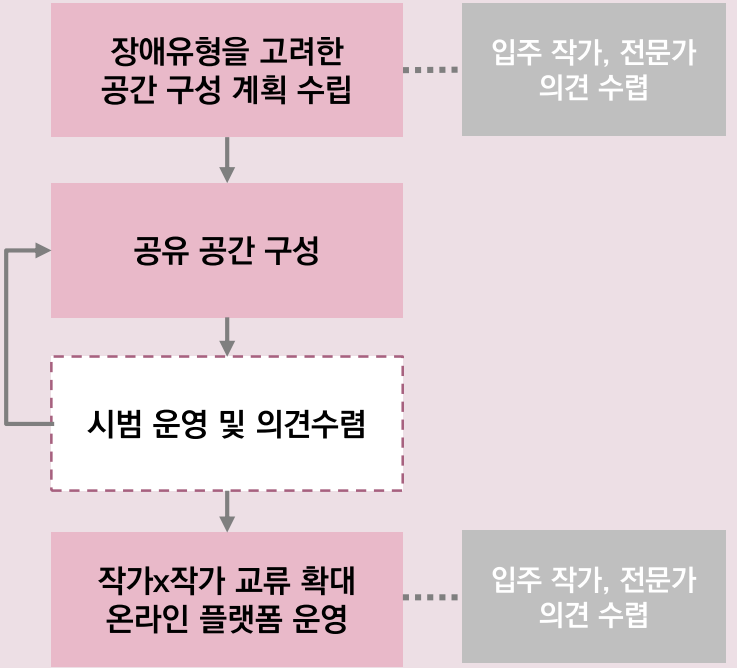
- 현재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의 개인작업실 외에 복합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작가들이 함께 교류하고, 활동하는데 한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작가들의 개인 작업실만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별적 공간이 아닌 입주 작가들이 서로의 아이디어와 일상을 교류할 수 있도록 오픈 형태의 라운지 공간 혹은 야외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열린 공간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자연스레 작가와 작가들이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으로 연결해 나감

"장애 유형별 구분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같이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발생한 문제를 두고 서로 이해를 높여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 그룹 인터뷰 내용 발췌

[공유 공간/프로그램 확대 프로세스(안)]

- 장애 유형에 구애 받지 않고 입주 작가 모두가 활용하는데 문제 없는 오픈 형태의 공유 공간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함
- 공유 공간 시범 운영을 통해 공간을 활용하는 주체인 작가들의 활용 후기,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
- 향후 작가들이 공유 공간을 활용하면서 작가들간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온라인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확대함



전략과제 3-2

[작가X시민] 시민들의 참여 공간/프로그램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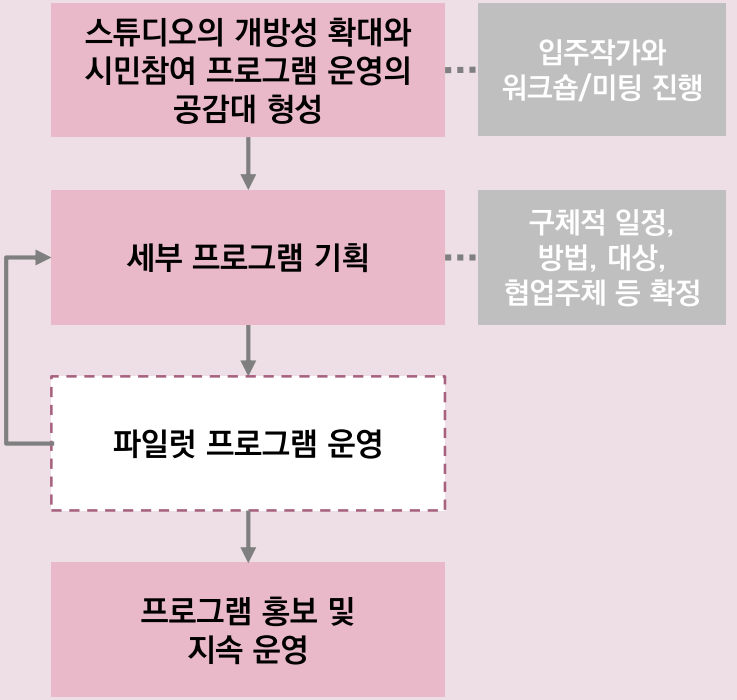
- 잠실운동장의 대대적 리모델링으로 인해 앞으로는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 이상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의 방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잠실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한 일대에 시민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새롭게 부여될 것으로 보임
- 이와 연계하여 입주작가의 활동과 스튜디오를 일부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레지던시로서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립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함

"잠실을 비유하자면, 입지상 조경수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입지 장소성을 반영한다면 타자를 마주하고
대화하는 실제적인 공간으로서 지향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 그룹 인터뷰 내용 발췌

[시민 참여 프로그램 프로세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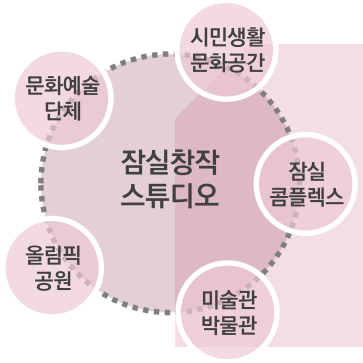
- 입주작가들과 스튜디오 개방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사전에 형성하고, 개방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선행함



전략과제 3-3

[작가X지역] 주요 지역 문화 주체/거점 공간과의 연계

- 잠실창작스튜디오가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작가군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 맺기 역시 중요한 요소임. 작가들에게 지역의 문화주체 및 거점공간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역과 접점을 형성하여 스튜디오가 창작과 실험, 성장과 공존의 협업 예술공간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함
- 송파구에는 송파예술마루, 송파마을예술창작소 다락, 리틀로프트 등의 시민 생활문화공간부터 샤롯데씨어터, 올림픽공원 올릭픽홀, 가든파이브아트홀과 같이 규모 있는 전문 문화예술공간, 올림픽공원, 박물관/미술관, 축제 등의 여러 문화자원이 자리하고 있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주체들과 장르를 넘어 가치와 협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간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작가와 스튜디오의 성장을 돕는 연대를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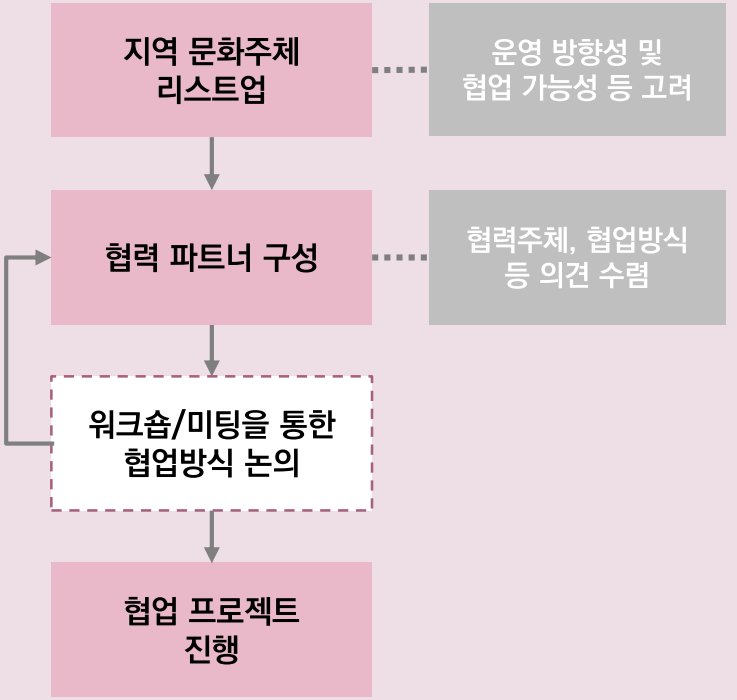


"종합운동장 내 타 시설들과 연계하고
입주작가나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활용한다면,
시각예술 외 확장과 협업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 그룹 인터뷰 내용 발췌

[지역 연계 프로젝트 프로세스(안)]

- 지역 내 자리하고 있는 문화예술 주체 및 거점공간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화함
-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운영 취지 및 기조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주체들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실무진 미팅, 작가 워크샵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연 1~2회의 협업 진행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04

공간 검토 및 구상 방안

1. 공간 검토 |
2. 구상 방안 |

공간현황

잠실종합운동장 데크 하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작공간 조성/운영

2013년 리모델링, 12개 입주작업실 등 연면적 약 600㎡(외부 공용작업실 95㎡ 포함)

■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 현황

커뮤니티공간

공용 카페테리아 미소뜬 58.9㎡
테이블, 의자, 정수기, 냉장고, 싱크대, 열람용 서고 등

입주작업실

꿈채운 183.5㎡ / 12실
붙박이장, 작업용책상, 의자, 간이침대, 인터넷(유선), 냉난방, 환기설비, 소방안전설비(스프링클러, 시각경보기, 투척소화기 등) 大作용 크랭크이젤 3ea

전시공간

나은갤러리 9.2㎡
콩갤러리 3.2㎡

가마실

외부 공용작업장
공용작업테이블, 소형집진기(이동식), 에어컴프레셔(2.5HP), 기본 전동공구장비 일체, 이동식 건조대 2ea, 전기가마(0.3루베), 에칭프레스(8절,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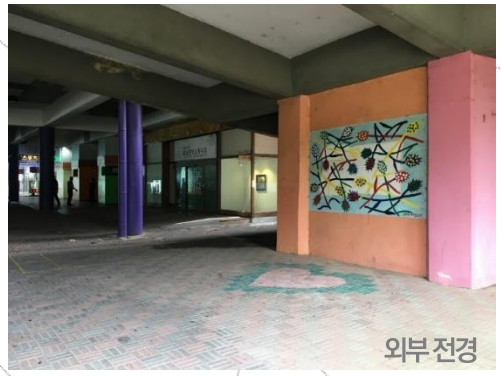
다목적공간

하늘연 105.9㎡ (천정고 3.6m)
4ch믹서, 무선마이크2ea, 빔프로젝터, 스피커(천정고정), 화이트보드 1ea, 이동식전시벽(W2,000*D500*H2,480)4ea, 강의용테이블 6ea, 접이식보조테이블3ea, 의자 20ea, 보조의자 30ea, LED할로겐조명(30ea)

공간 현황

주요 시설 현황

잠실창작스튜디오 외부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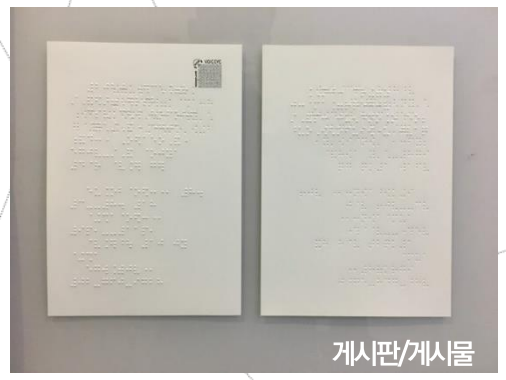

외부 전경

외부 전경

입주작가 전용공간

재실확인 명패

공용공간


게시판/게시물

하늘연(다목적 공간)

외부 공용작업장

공간재구성 주요이슈

현재의 공간 구성에 따른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필요 공간 등을 분석하여 공간 재구성의 원칙 수립

잠실종합운동장 전체 영역에서의 입지 이슈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시 외부와의 연계성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도록 함

▪ 현재 공간 구성에 따른 주요 이슈(안)

주요 이슈	세부 내용
개별 작업 공간의 기능 강화	• 12인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 작가수의 규모와 개별 공간의 규모 및 작업 공간의 쾌적성 사이에서 적정한 수준은 무엇인가? • 리모델링 이후 공동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의 필요성과 야외 작업장의 수용방안은 무엇인가?
프리젠팅 공간의 보완	• 현재 전시공간 및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하늘연 공간의 기능은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 • 전시 프로그램 이외의 복합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과 교육 및 강의 프로그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주요 공간 환경 개선	• 근무인원 대비 사무공간의 협소성이 개선되어야 함 • 탕비/휴게공간 개선이 필요함 • 화장실 편의성 개선 이 필요함

▪ 입지에 따른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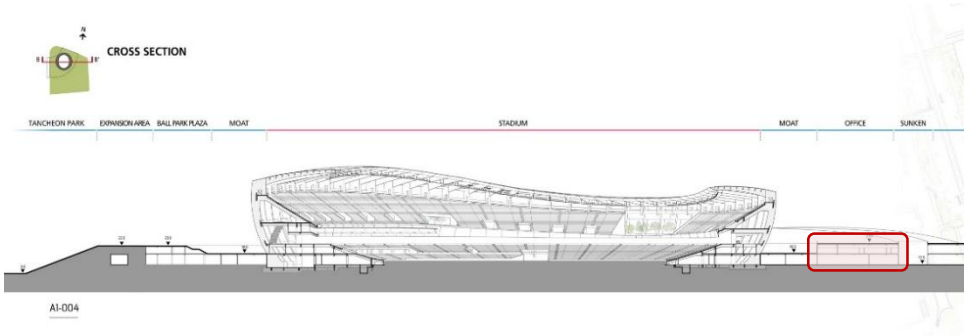
주요 이슈	세부 내용
[외부] 창작 공간 접근성	• 외부에서 창작 공간까지의 접근 동선 (대중교통 등 주차장 이용 외 동선) • 주차장에서 창작 공간까지의 접근 동선의 적정성 • 장비 및 대형설비, 작품 등의 반출입 동선의 적정성
[창작공간] 내부 접근성 및 연계성	• 창작공간과 인접 시설의 연계성과 동선의 적정성 •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차단의 적정성 • 레지던스, 장비 반출입 동선의 분리 등의 적절성

공간재구성 주요 이슈 :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연계 이슈

[참고 자료]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관련 이슈

이슈 1. 접근성 관련 이슈 : 잠실창작스튜디오로 인한 선도적 접근성 확보

- 기본적인 창작스튜디오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원활함을 넘어서 단지 전체의 접근성 부분에 있어 월등한 선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함
- 경기장 출입 및 각종 편의시설의 출입에 있어서 높은 접근성 확보(법적 수준을 넘어서는)를 통하여 선도적 문화체육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슈 2. 문화적 역량 연계 이슈 : 잠실창작스튜디오로 인한 문화거점 역할

-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시민 공원영역, 단지내부 광장 및 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하게 되는 편의시설들 속에서 문화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문화적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내부 입주시설이 있는 입주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단지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함

이슈 3. 협력과 연계 체계 이슈 : 원활한 협력과 연계를 위한 당면 과제

- 접근성 선도적 시설, 동남권의 문화적 거점이 되기 위하여, 이슈1/2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활한 협력관계가 정립되어야 함.
- 잠실창작스튜디오가 단순한 입주시설로 잠실 주경기장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관계정립이 되기 보다는 연계와 협력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재단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동남권담당 부서 및 추후 개발 및 운용사와의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공모 당선작 내용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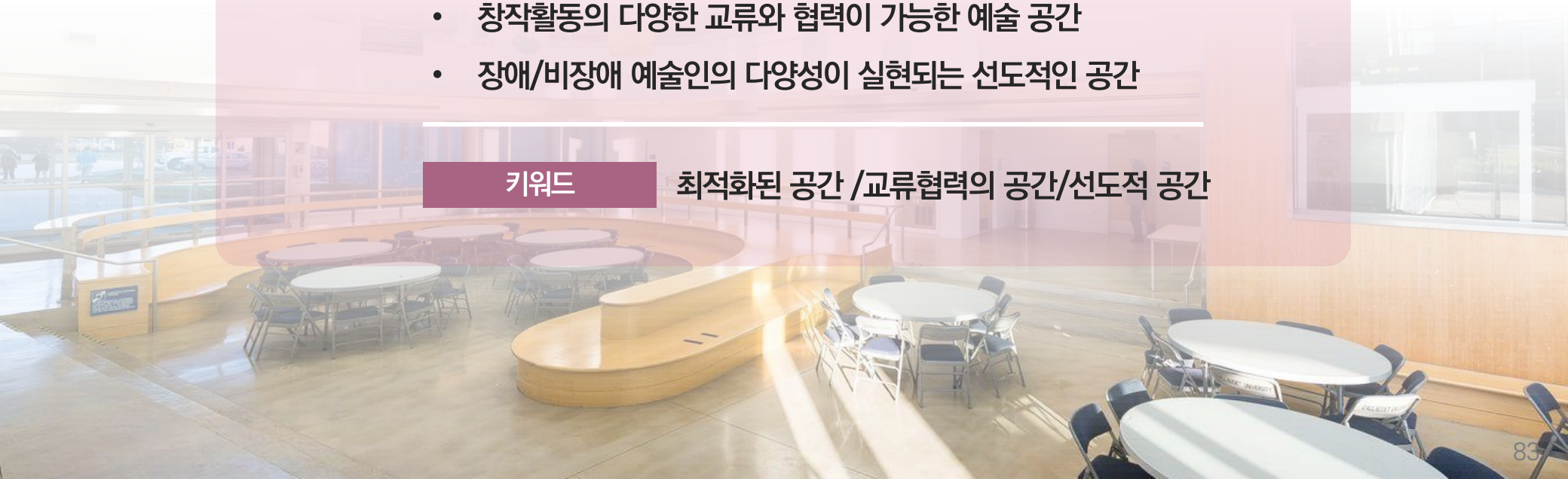
최적의 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며 다양성이 실현되는 선도적인 문화공간을 지향함

〈조성원칙 및 키워드 도출〉

조성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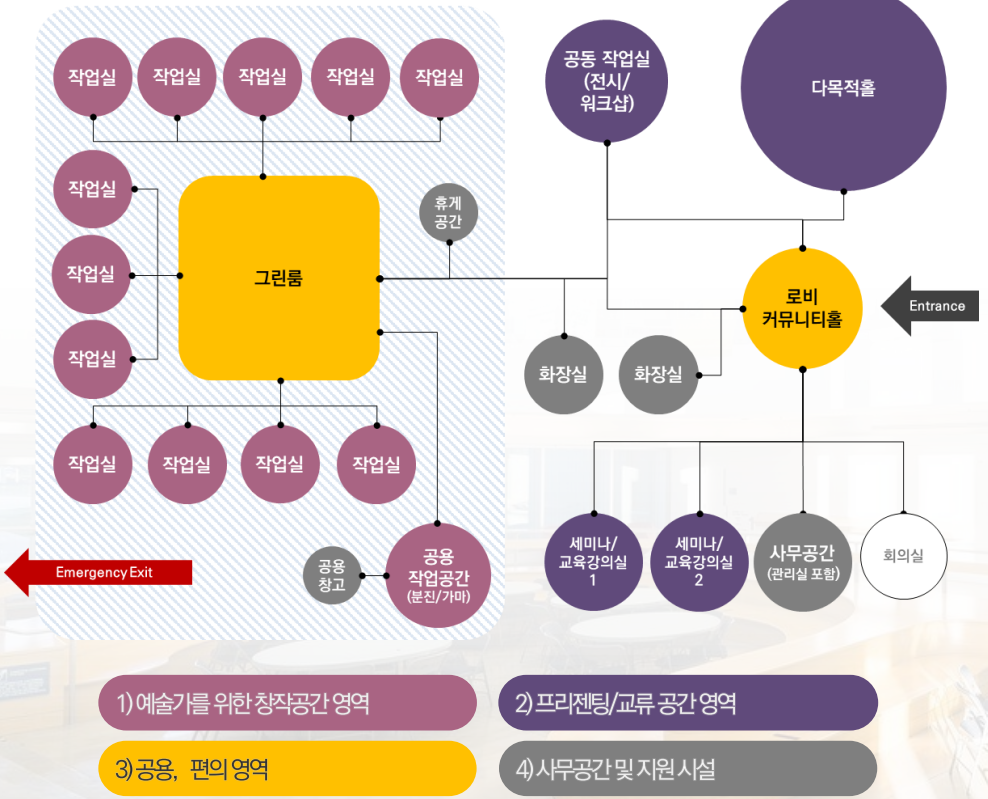
- 최적의 예술 창작 환경이 제공되는 창작공간
- 창작활동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예술 공간
-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선도적인 공간

키워드 최적화된 공간 /교류협력의 공간/선도적 공간



로비와 그린룸을 중심으로 각각 예술창작 공간과 교류협력공간이 구성되는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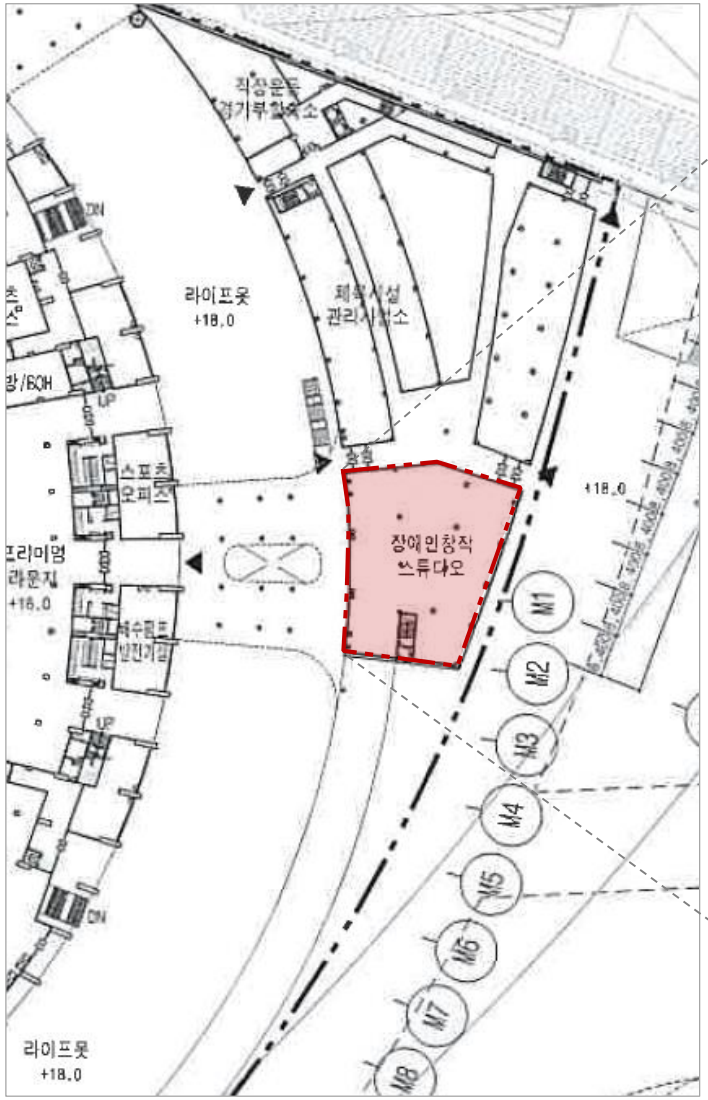
공간구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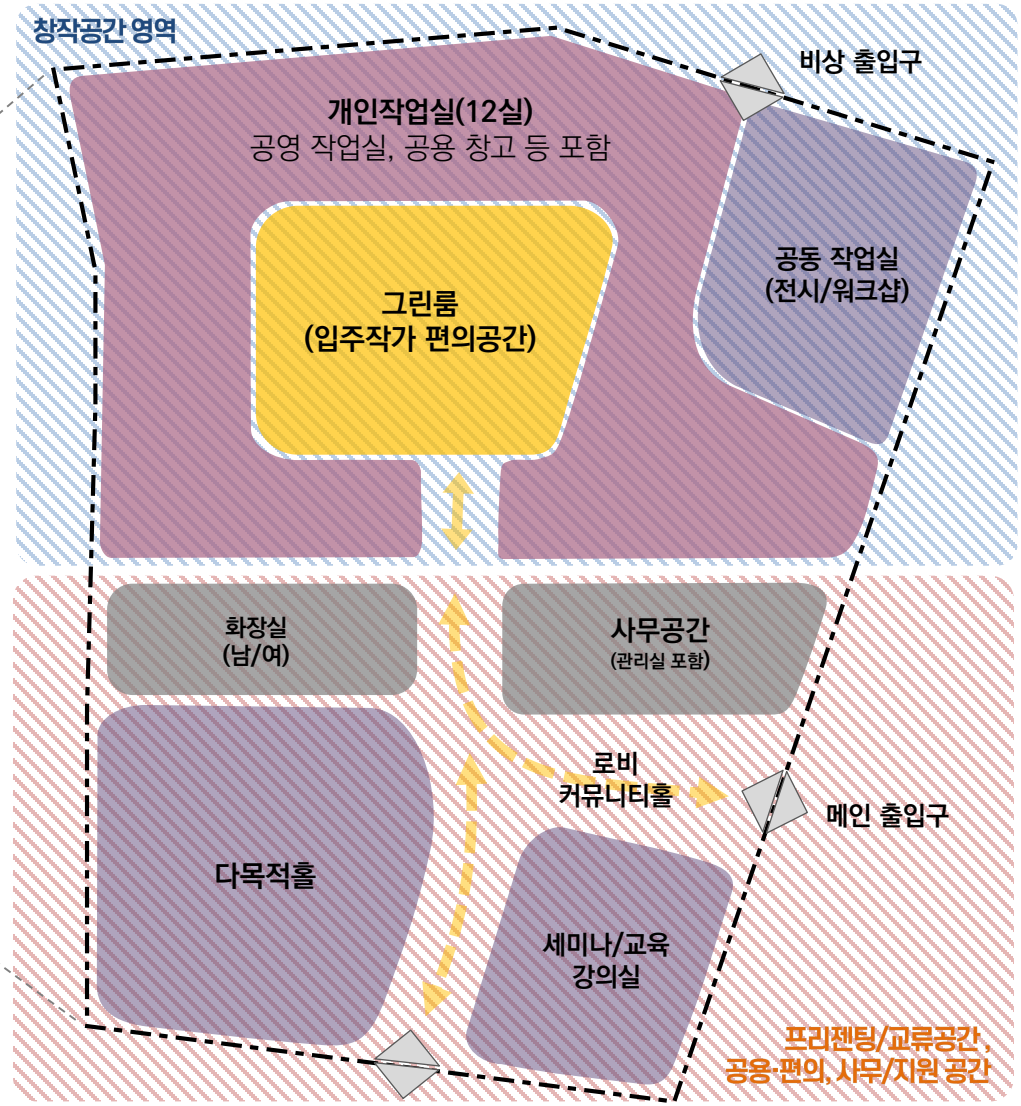
- 로비 및 커뮤니티홀이 출입구영역의 동선 코어의 역할로 구성됨
- 출입과 전시공간, 사무공간, 교육공간을 연계하며 개별 창작 공간의 코어인 그린룸으로 연결됨
- 그린룸은 개별창작공간의 중심 공간으로 작가들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 작업실로 연결되는 동선 코어의 역할로 구성됨
- 개별 작업실은 실당 약 5~6평 규모로 구성 되도록 함
- 2명 이상의 작가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공통 작업실 공간을 구성
- 현재 야외작업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진 작업 및 가마 등의 시설이 위치한 공용작업공간 구성
- 전체 공간의 구성이 로비와 그린룸을 중심으로 각각의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교류·협력의 공간이자 편의 공간이며 동선의 코어 역할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공간 프로그램 및 대안 도출 : 배치 시뮬레이션 및 기본 가이드 라인

〈계획 도면상 잠실창작스튜디오 위치〉



〈개략 공간배치 구상(안)〉



공간 프로그램 및 대안 도출 : 배치 시뮬레이션 및 기본 가이드라인

■ 창작공간 영역 가이드라인

창작 공간

- 12개의 개인 작업실을 기준으로 각 실당 최소 약 5평 수준의 개별 작업공간 확보
- 개별 창작공간은 가능한 개별 환기, 채광이 가능하도록 외기에 면한 개구부 조성
- 미닫이문(자동문) 형태/개별 카드로 개폐 가능한 시건장치 설치 등
- 실별 급배수 시설, 개별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기본설비 필요
- 기존 야외 작업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용 작업공간 필요(야외 공간 활용 가능여부 확인)
- 개인작업실과는 별도로 2인 이상 팀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워크샵 공간 조성

■ 전시/교류, 공용/편의, 사무/지원 영역 가이드라인

전시 교류

- 참여형 기획전시,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
- 무용, 영상 등 협업 프로젝트의 발표를 위한 기본적인 공연 설비(조명/음향 등), 높은 층고(3.6m 이상) 확보 등 고려

공용 편의

- 잠실창작스튜디오 방문자, 오픈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맞이할 수 있는 로비 및 커뮤니티 공간 구성
- 창작공간 영역에는 입주작가들을 위한 라운지 공간 조성
- 간단한 조리, 식사 및 다과가 가능한 시설 포함(급배수 설비 필요)

사무 지원

- 8~10명 내외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지원 공간 확보
- 운영공간 내부에 회의실, 자료 보관공간 등 포함

동선/배치 가이드라인

동선 배치

- **주출입구 및 비상 탈출구**
  - 주출입구와 비상시 대피 출구를 최소 2개 이상 양방향으로 구성
  - 비상출구는 한번에 쉽게 개폐 가능하며 휠체어 등이 동시에 나갈 수 있는 너비를 확보해야 함
- **창작공간 영역의 배치와 동선**
  - 창작공간 영역과 전시/교류, 사무공간 영역을 분리하여 구성(창작공간 영역 접근시 통제 가능하도록)
- **편의 공간의 배치와 동선**
  - 출입구 및 메일 로비를 중심으로 창작공간, 전시/교류 공간, 사무공간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
  - 창작공간 영역은 작가들의 휴게/편의공간(그린룸)을 중심으로 각 작업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 로비와 그린룸 두 곳의 편의공간을 중심으로 각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 고려
- **창작센터 접근 동선**
  - 도보/차량 이용 접근시 수직 이동/단차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접근성 확보 필요(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 **화장실**
  - 화장실은 로비와 그린룸 양쪽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배치
  -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며, 샤워/탈의시설 포함
- **채광 및 면적 확보**
  - 개인/공동 작업실의 경우, 최대한 자연 채광이 가능한 공간 배치 고려
  - 계단실/엘리베이터, 야외 작업장 등 실외에 조성 가능한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면적 확보 방안 필요

공간/영역별 주요 설계 지침 반영 요소

창작공간영역

예술가들의 개인 작업을 위한 쾌적한 공간

독립된 쾌적한 창작 공간 제공

- 현재 창작공간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보호자를 포함한 2명의 사용을 염두하고, 다양한 작업 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며 미닫이 형태의 자동문으로 출입구를 구성하여 사용에 편리성을 높임
- 개별 급배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 사용을 위해 이동하지 않도록 함

공용/공통 작업 공간 조성

- 2명이상의 공통 작업이 가능한 공통 작업실과 분진 작업, 대형 설비가 필요한 공용 작업실을 구성하도록 함

채광 및 환기 가능한 구조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구성

공용/공통 작업실
여러 작가들이 공동 작업이 가능한 작업실 공간 구성

작업용/ 청소용 개수대 설치
개별 창작공간마다 작업시 사용가능한 개수대를 설치하도록 함

프리젠팅/교류 영역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

- 전시, 공연, 대형 강연 및 세미나 등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유연한 공간의 프리젠팅 공간 구성
- 현재의 하늘연과 같은 기능으로 좀더 넓은 면적과 필요한 설비와 부속시설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

교육 및 소규모 강연 등이 가능한 공간

- 소규모 강연 및 교육 프로그램, 간단한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을 1개 이상 구성하여 외부 프로그램은 물론 내부 예술가들의 회의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한 구조

공연, 전시, 강연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다목적홀을 계획

전시공간으로 활용

작품 전시가 가능한 파티션 설치 등이 가능한 설비 반영

교육 소규모 세미나 공간

소형 강의와 세미나 및 미팅이 가능한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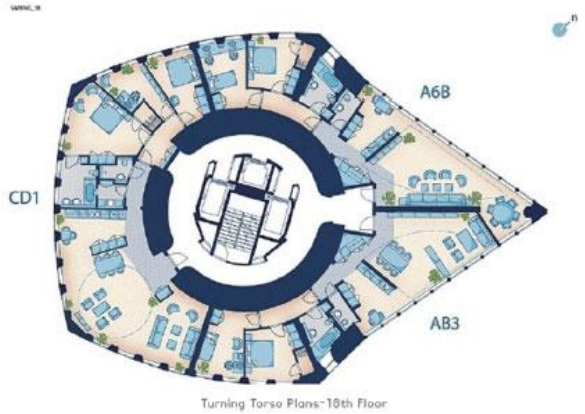
공용편의 영역

자연스러운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편의공간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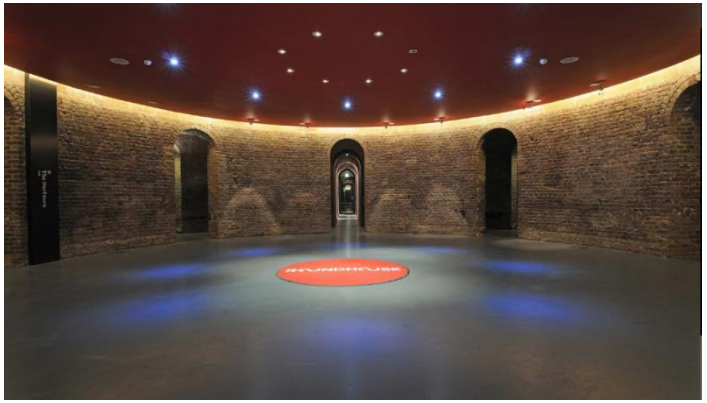
로비공간과 작가들을 위한 편의공간을 구성

- 출입구 영역에는 로비 휴게 공간을 구성하여 동선의 코어이면서 방문객들의 교류 공간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함
- 창작공간영역에는 작가들의 휴식과 교류협력을 위한 그린룸을 조성하여 각 작업공간으로의 동선이면서 편의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함

중앙에 조성된 로비와 그린룸을 통해
각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구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성
일상적인 휴식과 편의는 물론 간단한 이벤트도 가능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



동선 및 배치

주출입구와 함께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 조성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비상 탈출을 위한 비상 출입구 조성

-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를 계획하여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함
- 특히 휠체어 사용자들이 많은 경우 유사시 대피를 위한 단차가 없는 대형 개폐구가 필요함
- 이를 장치 반입을 위한 출입구와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비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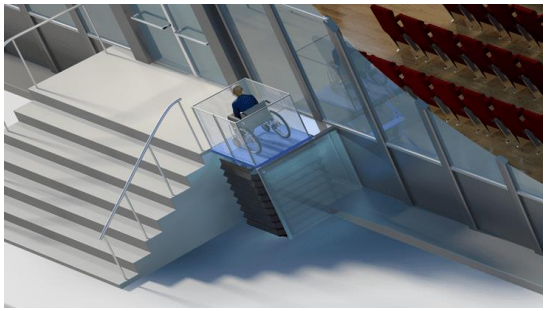
휠체어도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더블 도어 형태, 셔터 형태의 비상 출입구를 계획

동선 및 배치

주 출입 동선상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

주 출입 동선상 수직 이동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잠실 주경기장 내부의 동선에서 창작스튜디오로의 접근동선상에 수직이동(주차장에서접근시)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비 마련
-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수직 이동 동선 상의 장애를 없애고, 진입시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를 통해 진입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비장애인, 장애인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구성

만약 진입동선상 단차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보완설비가 반드시 필요

현재계획상 계단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세부 공간 리스트/면적/세부 조성 가이드

실별 필요 면적 및 고려사항 종합

no	공간명	면적(㎡)	실별 면적(㎡)	개수	고려 사항
1	개별 창작 공간	192	16	12	• 12개 / 각 실당 16㎡ 기준 • 예술가들의 개별 작업 공간으로 시각예술활동에 필요한 공간 요건 적용 • 실별 급배수 시설, 냉난방, 작업책상 및 시건장치, 미닫이문 등
2	공용 창고	35	35	1	• 개별창작공간과 연계 • 창작공간에 필요한 공용설비 등의 보관을 위한 공용 창고 • 각 개별 창작공간에서 모두 접근하기 쉬운 위치
3	공용작업공간	95	95	1	• 개별창작공간과 연계 (실내공간) • 대형 공용 설비 및 소음, 분진, 진동 등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비의 보관 및 사용 장소 • 가마, 선반, 용접 등이 가능한 공간
4	다목적홀	190	190	1	• 현재 전시실보다 큰 수준의 전시프로그램과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프로그램 공간 • 상부 조명 및 음향 시설 소규모 준비실(분장실) • 높이 최소 3.6m 확보
5	공통 작업실 및 전시실	80	80	1	• 소규모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 • 전시용 조명 및 강의에 필요한 설비 및 가구 비치(음향장비, 접이식 의자 및 책상 등) • 개별창작공간과 연계
6	세미나 교육 강의실1	25	25	1	• 교육, 강의, 회의용 공간
7	세미나 교육 강의실2	35	35	1	• 교육, 강의, 회의용 공간
8	로비/커뮤니티홀	40	40	1	• 출입구 영역의 공용 공간/대기 및 커뮤니티기능 • 라이브러리 형태 구성 검토, 소파 등 가구 비치
9	그린룸 (활동보조사 휴게실 포함)	80	80	1	• 입주 아티스트들 및 관계자의 휴식과 커뮤니티 기능의 공간 • 탕비시설 및 식사 및 조리가 가능한 공간
10	사무실	80	80	1	•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직원 사무 공간 (8-10명 근무 환경 조건)
11	회의실	30	30	1	• 사무용 회의. 자료보관 공간 등
12	준비실/창고	25	25	1	• 프로그램 공간의 지원을 위한 창고 및 전체 시설 관리를 위한 설비 보관장소(청소 등)
13	남자화장실	54	27	2	• 휠체어 사용자 샤워/탈의공간 포함
14	여자화장실	80	40	2	• 휠체어 사용자 샤워/탈의공간 포함
공용 면적		416.4	-	-	• 전체 면적 대비 40% • 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벽체, 설비공간 등
합계		1,457.4	-	-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역별 체크리스트

- New Zealand의 'Arts Access Aotearoa : Arts For All Accessibility : a checklist' 를 바탕으로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한 것으로 설계 및 시공, 추후 운영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임. 실별 세부 조성 가이드 이외에 공통적으로 공간 계획 및 시공시 준수해야할 가이드 내용임
- 약 60개의 가이드 중 최소 70% – 80% 이상은 충족 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반영하는 것을 권장함. 이에 따라 접근성의 선도적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역별 체크리스트〉

영역 분류	체크 리스트
공통사항	안전성을 위하여 설계 및 시공시에 가능한 원형, 유선형, 단차가 없는 공간 구성이 반영되어 안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충분한 자연광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시각, 청각 능력에 보완이 될 수 있는 환경 구현(자연채광이 불가시 보완책 필요)
	적절한 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공간별로 방음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비와, 청각장애인의 각종 보조기구 사용을 고려한 공간의 건축음향적 적절성이 고려되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에 의거한 기본적인 사항 준수는 물론 동선과 이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여유있는 면적이 반영 되도록 함
이동과 접근 (외부에서 창작 스튜디오)	대중교통을 이용 후 창작 스튜디오 방문까지 적절한 이동동선인지 확인 및 보완
	메인 출입구 밖에서 주·정차를 통해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창작 스튜디오 외부에 조명이 잘 갖춰져 있으며 안전하고 지붕이 덮여 있는 대기공간이 있도록 계획
	외부, 대중교통으로 부터 창작 스튜디오까지의 접근로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도록 계획
	지정된 접근성 높은 창작 스튜디오를 위한 전용 주차장 조성 여부 확인(휠체어 이동 고려)
	창작 스튜디오 전용 주차영역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 주차공간의 위치와 이동동선이 적정하도록 계획
입구영역 접근성	불가피하게 주요 입구에 진입로 경사가 있다면 경사로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함(경사로 난간 필수)
	출입구와 통행/진입로를 표시한 지도가 이용하기 수월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계획(점자, 음성 서비스 등 제공)
내부의 일반 접근성	창작 스튜디오의 주요 출입구 영역의 인테리어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계획(매트, 선반 등)
	주요 창작 스튜디오 내부 동선에 화분, 진열대, 가구 등 경로를 차단하는 위험이 없도록 계획
	위험요소(유리문, 문턱, 경사 등)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표시 및 주의가 되도록 계획
	동선상의 복도 폭은 최소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모든 접근 공간에는 휠체어가 진입 및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
	공간에 촉각 지표를 적용한 안내물이 적용되도록 계획하며 조명이 없을 시 경로 표시용 발광 표시기/간접조명 계획
	인테리어 색상이 높은 색상대비를 사용하도록 함(계단, 문틀 및 표지판을 나타내는 가시성 높은 대조색상을 사용 하도록 함)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역별 체크리스트(계속)〉

분류	체크리스트
계단 (창작 스튜디오 주변 및 연계 동선)	계단에는 연속된 난간과 함께 양 끝에 튀어나온 버튼/사인이 있도록 계획
	계단을 표준 높이(계단 사이 최대 18cm)로 설정하도록 계획
	계단의 가장자리가 둥글고 색상대조가 명확하도록 계획
	계단에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계획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버튼이 0.9~1.35m 사이의 적절한 높이, 문이 최소 0.9m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가?)
	휠체어를 포함해 다수의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 확보 (최소 1.4*1.4m의 내부 공간)
	내부에 안전을 위한 난간, 손잡이 필수 장착
	점자와 함께 통화 버튼을 위한 촉각 구분이 되도록 설계
	오디오 안내 방송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
	발광 화살표 또는 LCD 디스플레이와 같이 바닥을 보여주기 위한 조명 표시가 반영되도록 함
	리프트 또는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뚜렷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획 함
출입문과 출입구	창작 스튜디오 내에 최소 5초 이상 열림이 유지되는 자동문이 제공되도록 계획
	한 손으로 문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모든 유리문에는 위험 표시가 인지되도록 함
	모든 문의 손잡이가 바닥에서 1m의 정도의 높이(비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적정 높이)
	열렸을 때 문의 출입 너비가 최소 0.76m이며 방해물 없는 접근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계획
바닥	모든 바닥 표면이 균일하며 안정성 있도록 계획하며 경사로, 계단, 타일의 경우 표면에 미끄럼 방지 기능 설비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하기 쉬운 바닥 표면 재질 사용 (바퀴 이동에 위험요소, 카펫 등)
조명	창작 스튜디오의 조명이 균일하며 조명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도록 설비 및 계획
	수화나 입술읽기 등의 소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조명이 적절히 제공되도록 계획
	위험요소들이 있는 경우 정확하게 조명으로 밝혀야 하며, 광택이 있는 표면의 경우 눈부심이 최소화 되도록 함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역별 체크리스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역별 체크리스트(계속)〉

분류	체크리스트
화장실	접근성 높은 화장실을 모든 성별이 이용하도록 계획해야 함. 화장실의 위치가 명확히 식별 되도록 해야 함
	문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열리는 레버형 또는 자동 미닫이 문으로 계획하도록 함
	휠체어 사용자가 360도 돌 수 있으며 동반인과 함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함 (최소 1.9*1.6m의 내부공간)
	모든 조절은 한 손으로 가능하도록 계획함
	L자형 손잡이 레일/난간이 설치되도록 하며 세면기, 버튼, 거울, 핸드드라이어 등 모든 편의시설이 접근 가능한 높이로 계획
청각보강시스템 (청각루프 및 적외선 관련 시스템)	창작 스튜디오에서 청각보강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 확보
	해당 시스템/설비의 장소와 사용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 사인을 제시하도록 함
표지/사인물	스튜디오 및 연계 공간의 사인물들은 모두 명확하며 읽기 쉽도록 설치 (표지와 라벨이 1.2m~1.7m 정도 크기로 반영함)
	글꼴과 글자 크기가 읽기 쉽도록 설정 반영되도록 함 (고딕/돋움 계열, 최소 22pt)
	창작 스튜디오 및 연계공간에는 점자 표지/사인을 사용하도록 계획에 반영
	모든 표지 및 사인물 시스템은 아침, 낮, 오후 등 시간에 변화에 따라서 모두 적절히 노출되도록 계획 (조명, 눈부심 방지 등등)
	창작 스튜디오 내부 행사 중 현란한 조명, 연기, 큰 소음이 사용될 경우 이를 고지하는 적절한 표지와 사인물 배치
식음료, 조리	식음료 섭취 및 조리를 위한 영역의 가구 등의 높이가 접근 가능한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계획(휠체어 등)
	적정 수준의 높이가 일괄 적용되기 어렵다면 적정한 보조 설비와 대안이 비치되도록 계획함
휠체어 사용자 지원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충전 공간이 마련되도록 계획
안내견 지원	안내견을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안내견 휴식공간 및 화장실 등)
비상대피	비상시 대피로와 출입구가 휠체어를 포함한 모두에게 적절하도록 계획함
	비상사태 및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보 시스템 갖추도록 함 (시각적/음성 경고가 모두 제공되도록 함)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보제공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설비를 고려한 계획 (인쇄물 비치, 대형 글자/인쇄물, 오디오, 웹사이트 접속 등)
	각종 행사시 프로그램별 다양한 형식의 홍보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비치 공간 등이 마련되도록 계획
	음성을 문자 정보로 전환시켜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도적 사례가 될만한 문화공간

Gallaudet University
(미국 워싱턴 D.C.)

대표적인 베리어 프리의 개념이 적용된 공간적 사례

1864년에 청각 및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출발하여 현재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청각 장애인을 위한 고등 교육기관임. 감각적으로 예민한 장애인에게 자연채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모든 장소가 자연채광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또한 최대한 투명하고 원형의 디자인으로 처리하여 어디서든 수어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함. 건축가 한셀 바우만의 청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deaf space'의 개념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베리어 프리(barrier-free) 공간
모두가 평등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 다양성의 시대에 모두에게 평등한 문화적 체험과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문화공간인가의 이슈는 장기적으로 해당 문화공간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게 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현재 시점에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공간의 구성과 설비가 장애인에게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기도 함
- 베리어 프리 공간의 선도적 사례들을 통하여 공간의 개선과 변화를 도모 할 수 있음

Deaf Space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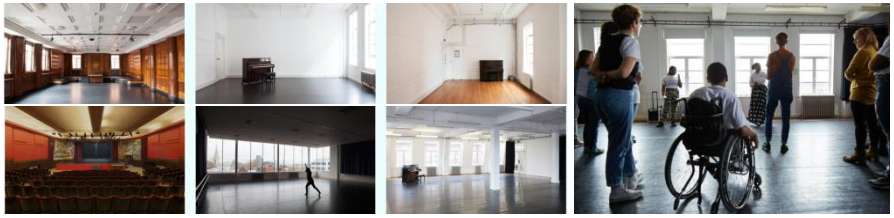
건축가 한셀 바우만이 청각 장애인에게 최적의 공간적 구성과 요건은 무엇인지를 설계디자인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실행하여 구축한 개념
감각적 도달 (sensory reach) / 공간과 근접(space and proximity) / 이동성과 근접(mobility and proximity)/빛과 색(light and color)/ 건축음향 (acoustics) 등의 요건별로 각각 청각장애인에게 보다 편리한 조건과 환경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음

참고 사례 토인비 스튜디오(Toynbee Studios) 영국 런던

장애가 아닌 탈경계, "경계 없이 대범하고 탈학제적인 작품을,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예술인을 지원

- 영국 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장애예술지원프로젝트인 〈Unlimited〉의 수행기관 중 하나인 Artsadmin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로, 극장, 리허설 장소, 창작스튜디오, 카페 등으로 구성됨
- 2020년 10월 기준 16개의 창작 집단/개인이 입주 중임. 입주 예술인/조직에 장애 여부는 제한이 없고, "경계 없이 대범한 작품을 지역사회와 나라, 국제 관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함
- 스튜디오는 물리적으로 배리어 프리를 구현하고 있으며, disabled toilet과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고 샤워도구의 높낮이 등도 고려한 형태로 조성된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음
- 또한 이 스튜디오는 Artsadmin 프로그램의 주요 3개 축 중 하나로, 장애예술에 국한되지 않은 내용의 다른 2개의 축과 맞물리며 자연스럽게 장애예술 경계가 허물어지는 효과를 냄

  이 3개 축은 1) 예술가 : 현대 공연예술인에 서포트, 자원, 트레이닝 지원 2) 참여 : 청년,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 3) 토인비 스튜디오 : 우리 기관의 거점이자 창의 허브



지역 문화센터
2020년도 새로 런칭한 4년 프로젝트, Youth Programme(BE-PART)을 이 스튜디오와, 다른 공간에서 진행 예정

작업실 제공/프리젠팅
극장, 리허설 장소, 창작스튜디오, 카페 등을 갖추었으며, 모든 장소에서 장애 접근성을 확보함

전시+유통
입주 예술가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진행되는 작품,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보유한 극장에서 올림

네트워킹
영국의 Unlimite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수행기관인 ShapeArts와 협력 및 스튜디오가 속한 기관인 Artsadmin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유기적으로 연계

국제교류
토인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Artsadmin은 세계의 예술가들이 이끌고, 모든 활동가에게 열린 워크숍인 〈Weekender Labs〉 프로그램을 운영

참고 사례 아트인에이블스(Art Enables) 미국 워싱턴DC

공간/프로그램 상의 열린 구성으로 외부 접촉 면적 넓히고 작가 개개인에 대한 소개 및 작품 판매 차원의 매개 활성화

- 장애를 가진 예술가가 작품으로써 창작, 판매, 수익 창출의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아트 갤러리이자 스튜디오로 미국 워싱턴DC의 중심부에 위치함. 현재 40명의 아티스트 입주해 있고 올해로 18년째 운영 중임
- 스튜디오 창작, 전시,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세가지 방향으로 운영되는데, 모든 활동에서 작품의 판매 관련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고,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함. 특히 15주년인 2017년에는 그간 1백만달러 가치 이상의 작품 판매 성과 발표
- 민간 후원과 정부 지원으로 스튜디오 운영의 재원이 조성되고, 작품 판매 금액은 전부 예술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감. 입주자에게 갤러리 이용 자체는 무료이나 주간 리뷰, 입주자 간 크리틱 진행, 작품 완성 이후 전시나 판매에 적합한 지 평가하는 단계 등을 통해 작품 창작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
- 공간적으로는 창작공간 확대 레노베이션을 2016년말~2018년 초까지 진행하였으며, 예술 장르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극과 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갤러리

- 1층 갤러리 공간: 1년 단위로 전시 기획. 입주 예술가의 작품 전시. 크고 밝고 넓음. 입주 예술가들을 조명하는 데 중점. 1층 전시공간을 이들의 home이자 커뮤니티 중심 워크숍/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쓰임
- GF 갤러리 공간: 지역의, 신생의, 독학하는 예술인들은 위한 보조 예술공간이자 전시공간. 보다 넓은 워싱턴 DC 지역의 예술인들의 작품도 전시하며, 공간을 다이내믹하고, 풍부하고, 선구적인 작업을 보여주는 넓고도 친근한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함

공간 유형별 참고 사례 창작공간 유형 | 아트 스튜디오

참고 사례 민들레의 집(Tanpopo-no-ye, たんぽぽの家)

1970년대 문화운동에 뿌리를 둔 국제적 예술운동 네트워크 공간적 리뉴얼을 통한 예술창작활동 증진

- '커뮤니티 아트 센터'라는 정체성을 설정하고 누구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장소를 지향
-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을 전개(Able Art 운동, 포용적 디자인 프로젝트, 돌봄제공자에 대한 돌봄 등)

"'예술'과 '돌봄'의 기준을 두고 다양한 범위의 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 통합에 열의를 갖고, 공공에 예술과 시민 문화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공공성이 강한 일들을 통해 국내외의 문화적 운동을 네트워킹한다."

Art Center HANA

- 민들레의집은 2004년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 아트센터 하나(Art Center HANA)를 나라현, 나라시에 오픈
- 예술/일/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어 예술작업 이외에도 창업, 컴퓨터 활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커뮤니티대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함
- 여러 종류의 공간을 구비하고 있어 복합적인 활동을 전반적인 수준으로 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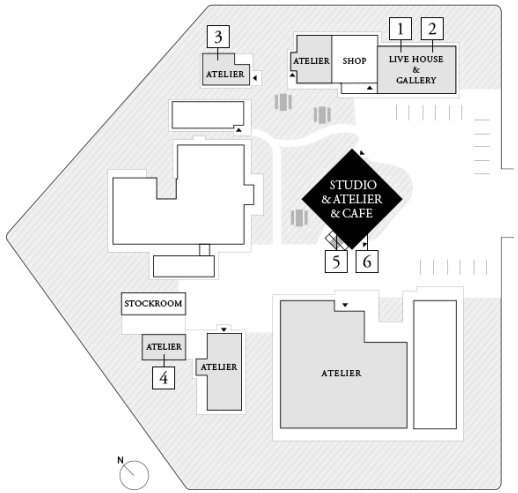
공간 유형별 참고 사례 창작공간 유형 | 아트 스튜디오

참고 사례 야마나미 공방(Atelier Yamanami)

자폐·지적장애 예술인이 오롯이 그들 자체로 있는 공간을 지향,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예술적 성과 인정받고 있는 스튜디오

"모든 이들은 각자를 행복하게 하는 고유의 일이 있다. 그들은 그들 자체로 행복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나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정립하고 표현하며, 다른 누구도 이를 왜곡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변화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 자폐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예술인 90명 가량이 이 공방의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 스태프는 22명 정도 되어 이들은 예술작업 외에도 운동, 산책, 음식만들기 등의 여러 생활 활동도 병행
- 1986년에 일본 시가현의 코카시에 설립되었으며 이용 예술인이 오롯이 본인으로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함
- 공간적으로는 갤러리부터 라이브하우스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보유한 갤러리의 경우 세계 각지에서 1만명 이상이 방문했음
- 이들의 예술적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몇 개의 작품이 프랑스, 영국 등 유수의 갤러리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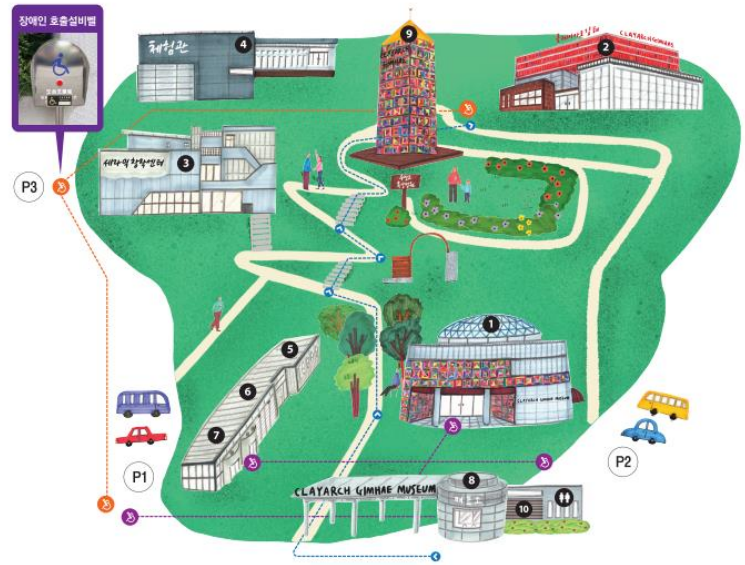
공간 유형별 참고 사례 창작공간 유형 | 거주형 스튜디오 (Residential Studio)

참고 사례 **세라믹창작센터**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내

예술행위자들의 도구로 기능하는 실험적 창작공간 마련

예술가의 시선/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한 barrier-free 공간 맵핑

- 세라믹 전문 창작 스튜디오로써, 건축·도예·디자인·회화·조각 등 **시각 예술가들의 창작 아이디어를 실현화** 시키는 공간
- 2010년 단기 입주 작가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8명 국내외 작가들을 선정하여 창의적이며 실험적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작 공간 (실험실/공동스튜디오/목·철공실/소성실/시유실 등) 이나 제작 시설(대형 전기,가스 가마 등) 제공 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 특성을 (경남 김해) 배려하여 주거 가능한 게스트 룸 13인실 (1인용 10실, 2인용 3실)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예술가의 창작 환경 조성**
- 작가 오픈 스튜디오, 연구 세미나,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입주 작가를 주체로 하는 프로그램을 매개로 예술가, 기획자, 평론가 등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에서 기획하는 전시, 학술, 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



연 구 수 행 기 관 ㈜**메타기획컨설팅**

사 업 총 괄 오 성 호 |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본부장

연 구 책 임 김 영 익 |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팀장/선임 컨설턴트

연 구 원 강 재 훈 |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팀장/선임 컨설턴트
엄 태 은 |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협력 컨설턴트
김 현 아 |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PD
정 유 빈 | 메타기획컨설팅 사업본부 팀원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발 행 일 | 2020년 11월

발 행 처 |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sfac.or.kr

*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